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4031-200000012915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Transmission Plans for Culture of Jeju Haenyeo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고 은 솔

2018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Transmission Plans for Culture of Jeju Haenyeo

지도교수 정 상 철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고 은 솔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2018년 2월

이 논문을 고은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2월

심사위원장 최 종 호

심 사 위 원 안 미 정

심 사 위 원 정 상 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Ⅰ. 연구대상 ·····4
Ⅱ. 연구방법과 구성 ·····5

제2장 제주해녀문화 유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선행연구 분석 ·····7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의 ·····11
Ⅰ. 제주해녀문화의 개념과 가치 ·····11
Ⅱ. 제주해녀문화의 지정 및 등재와 의의 ·····21

제3장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체계 현황 ·····36
제1절 제주해녀문화 전승정책의 전개과정 ·····36
Ⅰ. 수산 중심의 지원 ·····37
Ⅱ. 문화 개념의 도입 ·····41
Ⅲ. 유산으로서 제도적 관리 ·····46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체계 현황 분석 ·····49
Ⅰ.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49
Ⅱ.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조직 ·····59

제4장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전승방향과 발전방안 ·····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1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 전승방향 ·····67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70
Ⅰ. 민·관·산·학 네트워크 형성 ·····70
Ⅱ. 전승공동체 지원 ·····71
Ⅲ.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5
Ⅳ. 제주해녀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 활용 ·····78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90
Abstract ·····9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표 목차

<표 1> 운영지침의 국가적 수준의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지속가능개발 주요내용 ·····19
<표 2> 각 제도별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요소 ·····22
<표 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 전승가치 ·····24
<표 4>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 전승환경 ·····26
<표 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평가항목 ·····32
<표 6> 제1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사업 및 투자계획(2011~2015) ·····45
<표 7> 제주해녀문화 보존정책의 전개과정 ·····47
<표 8> 해녀 진료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50
<표 9> 진료비 지원내역 ·····51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55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발간 학술자료 ·····62
<표 12> 연도별 제주해녀 수 ·····72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그림 목차

[그림 1] 물질 도구 ·····16
[그림 2]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방향성 정립: 지속가능한 개발 ··69
[그림 3] 제주해녀문화유산 관리조직 ·····7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해녀문화 유산과 관련된 제도들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산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향과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생업활동을 했던 여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신앙 및 의례, 공동체 문화, 해녀노래, 마을어장, 해신당 및 불턱, 물옷과 물질도구 등 유·무형적 소산들이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다. 제주 해녀들의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 해안마을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 이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3개의 유산 제도에 지정·등재되어있다. 우선 2015년 12월에 '제주해녀어업'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 11월에 '제주해녀문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2017년에 5월에 '해녀'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이는 해녀들이 사회가 변함에도 그들의 공동체를 굳건히 이어온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찍이 해녀들이 생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녀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연구해온 연구자들과 이러한 가치들을 공공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언론과 민간의 활발한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렇듯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는 해녀 공동체 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언론, 학술연구자들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사회의 활동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 따라서 해당 문화의 전승공동체인 해녀회(어업공동체) 및 어촌계(어촌공동체) 외에도 이 문화가 형성되어 온 토대로서 지역사회와 유산화의 추진체로서 지방정부와 언론기관 등이 해온 역할을 볼 때 이들 또한 이 문화의 전승 주체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유산'인 제주해녀문화는 이처럼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물리적 환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경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지속가능한 전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해녀문화'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관리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의미와 관련 유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 기반을 갖춰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유산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본 논문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제주해녀문화의 개념 정립을 위해 기존 연구 검토와 함께 각 유산 제도에서 인정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제주해녀문화는 그 자체로 생업이자 문화인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시스템이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는 크다. 유산의 관리는 유산이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지원을 활발히 해왔다. 이는 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목표와 내용 측면에 있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는 점이다. 무형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창조적 기반의 역할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개발, 사회적 개발, 환경 지속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무형유산은 자연친화적이며, 유산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제주해녀문화는 덧붙여 현재에도 경제적인 기능을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구조 속에서의 역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하여 각 축에 대입하였을 때 향후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둘째,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해 전승공동체를 지원한다. 셋째, 정책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 시

한국문화재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활용한다.

본 논문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제주해녀문화, 지속가능한 전승, 무형문화유산, 어업유산, 유산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11월 30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제주해녀문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제주라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하고, 자연친화적인 어업방식을 통해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지식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제주해녀문화는 2015년 이미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해녀어업’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국내에서는 전국의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해녀는 이제 보호되어야 할 유산으로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FAO 세계농업유산시스템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전 세계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전통적인 어로문화이다. 특히 ‘물질’이라고 하여 특별한 잠수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다른 어업방식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이를 여성들이 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녀들의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이어온 유·무형적 소산들이 있는데, 해녀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을 비는 ‘잠수굿’과 이를 행하던 공간인 해신당,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노래’, 어머니, 시어머니에서 딸, 며느리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해녀문화는 자연과 공생하고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세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 해녀들의 문화는 제주 해안마을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 게다가 제

주와 과거 제주 해녀들이 바깥 물질을 나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 등에서 현재까지도 전통 어로방식과 문화를 유지한 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히 제주에서는 4000여명이 넘는 해녀들이 있다.

이처럼 제주해녀문화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전승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녀들이 사회가 변함에도 자연과 공존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존속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 문화의 지속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실천 및 지역 언론의 역할 등도 병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 해녀문화의 유산등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한 문화의 지속성을 위해 해당 생업공동체 외에도 지역의 민관의 활동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제도적 실천을 보면, 해녀들의 작업환경 보호와 생계지원으로 시작한 정책이 해녀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으로 바뀌었고, 해녀의 생업과 문화는 동시에 유지될 수 있었다. 현재 해녀문화의 보존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정책에는 해녀 복지 정책, 해녀박물관 운영과 박물관의 학술연구, 제주해녀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정 문화재들의 보존, 신규해녀 양성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의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민속학, 역사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해녀 및 해녀문화를 다루어왔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해녀에 대한 지식의 기반이 이루어졌다. 이후 해녀들의 바깥물질, 해녀 항일투쟁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해녀노래와 해녀들의 잠수굿 연구 등이 민속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연구들이 등장하였고, 제주해녀와 일본 아마와의 비교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2010년에 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2012년에 해녀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에 대해 전국의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비교 분석한 연구 등 경제학, 관광학, 법학 등에서도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해녀와 관련하여 문학, 민속학, 역사학, 경제학, 관광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음악학, 복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해녀와 관련된 연구되면서 현재 제주해녀문화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의 틀이 정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연구는 미약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고서는 다수 존재하나 유산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등이 학술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많지 않다. 제주해녀문화가 지닌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유산 관리에 있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지속해온 탄탄한 관리 기반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제주해녀문화로 얽혀 있는 3개의 각 유산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3개의 각 유산 제도가 얽혀있는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각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유산 관리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산 제도들을 분석하여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정립하고자 하며, 각 제도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산 관리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제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산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산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각 제도의 유산 관리의 방향성에 부합하고 각 관리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주해녀문화'를 유산 문화로서 접근하여 그 관리에 관한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Ⅰ. 연구 대상

제주해녀문화는 제주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생업활동을 전개하는 해녀들의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린 많은 학자들 중에는 영국 인류학자 타일러(E. B. Tylor)[1]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타일러는 문화를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법, 도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이나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비추어볼 때, 제주해녀문화는 제주 해안마을 여성들이 전개해 온 어업 행위와 그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제주해녀문화의 주체인 해녀들이 각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어촌계에 속해 있으며 주체적으로 해녀회를 구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해녀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들 또한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다. 우선 유형의 자원에는 해녀들이 사용했던 물옷과 물질도구들, 불턱, 굿을 하던 해신당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이들은 주로 제주도의 해안에 위치하여 제주의 해안선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형의 자원들에는 해녀문화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녀공동체 문화가 있다. 여기에 해녀의 물질 기술, 민속 지식들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다른 무속신앙들 또한 해녀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제주해녀문화와 이들을 둘러싼 유산 관리 정책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관리에서 관리(management)란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보호의 개념에는 '보존'과 '활용'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Protection)는 문화

1) Edward. B. Tylor, 1871, Primitive Culture. London: J. Murra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재를 위험·파괴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하고, 보존(Preservation)은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활용(Promotion)은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널리 향유시키는 것을 말한다.[2] 따라서 문화재의 관리란 문화재의 보호이자, 보존과 활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관련된 개념으로,『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의 제2조 3항에 정의하고 있는 보호(보전 safeguarding)[3]는 감식(identification), 정보관리(documentation), 연구(research), 보존(preservation), 보호(protection), 진흥(promotion), 강화(enhancement), 전수(transmission), 특히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측면의 활성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력(viability)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방책을 의미한다.[4]

Ⅱ.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가치를 보호·전승하기 위해 관련 유산 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유산 관리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해녀문화 관련 참고자료들을 조사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유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개념과 가치 및 의의, 유산으로서의 관리 방향성을 고찰함으로써 제주해녀 및 제주해녀문화와 그 유산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로, 위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와 관련된 관리체계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체계에 관한 문

2)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faclpi/220882497815, (검색일 : 2017. 11.25)
3) 최종호, 2017,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무형유산학』 2(1), 전주: 무형유산학회, 6쪽 재인용
4) 최종호, 2016,「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을 중심으로」,『글로벌문화콘텐츠』23, 195-215쪽

제점 및 발전방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을 토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해녀의 보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제주해녀 보존 정책과 관련된 도의회 회의록·도청 행정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제주해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인 논문·단행본,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5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 에서는 우선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유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체계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제주해녀 보존 정책의 전개과정은 제주 해녀의 생업 유지를 위한 수산지원 정책 중심의 시기와, 제주해녀의 삶에 문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문화유산으로의 전승·보전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3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였고, 한계점을 서술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제2장 제주해녀문화 유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김영돈(1999)에 의하면 미 국무성에서 1960년대부터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생리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하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주도는 해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제주의료원과 서울대의대 합동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점차 민속학, 역사학, 인류학 등으로 학문 분야가 다양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는 각 요소와 그 가치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관련된 연구, 유산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우선 대표적으로 강대원의『해녀연구』(1973)[5]가 있는데, 해녀에 대한 초기 연구 기록물이다. 해녀의 역사부터 작업형태와 신체적조건, 입어분쟁 등 해녀연구의 기초 토대가 되었다. 김영돈의『한국의 해녀』(1999)[6]는 이를 잇는 해녀연구의 개론과 같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연구 성과물이다.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해녀의 수가 급감하던 시기인 90년대 후반, 21세기의 체계적인 해녀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7가지[7]로 구분하였으며, 향후 해녀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5) 강대원,1973, 『해녀연구』, 서울 : 한진문화사
6)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서울 : 민속원
7) 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7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여성으로서 바다를 일터로 삼아 해산물을 캐어 생계를 유지하는 이색적 직종을 지닌다. ②해녀들의 물질에 대한 의지가 초인적이며,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생리·의학적 연구가 활발하다. ③범상치 않은 체력과 생리, 의지를 갖추고 있음 ④제주도 연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연해 및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도 물질작업을 함 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한다. ⑥ 노를 저으며 부르는 '해녀노래'를 전승하는 유일한 전승자 ⑦ 제주해녀들의 노동은 제주 남녀의 성별분업실상을 보여주며 이는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에 대한 연구가 문화인류학적·민속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생리학적·의학적 관점, 해양과학적 관점, 구전문학적 내지 민족음악적 관점, 법사회학적 관점, 어학적 관점, 여성학적 관점 등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예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해녀문화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각 장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해녀기술, 해녀복과 도구, 해녀와 관련된 민속(입어관행, 민간신앙, 설화, 해녀노래, 속담, 직업어), 해녀바다, 해녀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그것이다. 또한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나갔던 역사와 구체적 사례들, 제주 외 지역의 해녀들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해녀노래, 민속지식, 신앙, 일본 아마와의 비교 고찰 등 민속의 각 유형별 연구가 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제주도내에 남아있는 해녀들의 생업현장과 다양한 문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8] 도내 100여 곳의 각 어촌계 별로 조사되어, 각 어촌계별 생태 환경, 해녀노래, 무속신앙과 의례, 해신당, 불턱, 관습과 규약, 문서, 해녀들의 언어, 해녀작업 현황과 실태, 보존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내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들과 그들의 문화 보존 현황을 정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도내 지역 간 해녀와 생태 환경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제주해녀와 해녀문화가 연구된 이래 현재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는 유산으로는 크게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유산으로는 해신당 및 불턱, 마을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 마을어장이 있다. 무형유산으로는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해녀노래, 언어적 표현, 신앙 및 의례, 그리고 제주해녀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언급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일부로서 각 요소들이 지닌 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은 제주해녀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이란,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하는 총체적인 방법들을 말한다. 해녀들만의 독특한 잠수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방식,

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해녀들이 세대를 이어 자연에 적응하며 쌓아온 민속지식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해녀 연구를 진행하였던 강대원, 김영돈이 있다.

해신당과 불턱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로 좌혜경 · 권미선(2009)은 제주 해녀의 생업과 관련된 바다어장 이용과 해산물 채취 및 분배, 전승문화와 관련한 해신당과 무속의례, 해녀노래, 해녀전설과 생업담, 불턱, 마을 어장 운영규약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해신당은 해녀문화의 무속신앙과도 관련이 있으며 해녀들이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거나 신앙하는 곳이며 성소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해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고 있다.

해녀노래는 김영돈, 좌혜경, 이성훈, 변성구 등에 의해 그 사설구조와 유형, 표현에 대한 분석, 가창자인 해녀들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좌혜경(2002)은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 와 제주 해녀를 비교민속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성훈(2002, 2003, 2009)은 통영과 속초 등 지방의 해녀 노 젓는 노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설과 현장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문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 중 언어적 표현은 문화를 함축하고 이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주해녀문화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해녀' 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부터 해녀들의 물질작업과 민속지식에 관련된 다양한 어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양희주(2015)는 제주 해녀와 관련된 어휘를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어휘 분류방식을 따라 해녀 명칭, 바다류, 작업류, 해녀복 및 작업 도구류, 채취물류로 분류하였으며, 해녀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제주해녀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수성과 '섬' 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결합된 해양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제주해녀의 역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박찬식(2004)은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해녀에 대한 시대적 변천 과정을 검토하였다. 남사록, 성종

실록 등을 통해 조선전기 포작과 출륙금지령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포작은 미역·전복 진상물의 부담을 지었던 남자들을 일컫는데, 관의 수탈과 과중하게 부과된 역을 피하기 위하여 출륙하는 일이 잦아지자 결국 인조 7년 출륙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포작의 역이 제주에 남겨진 여성들에게 대신 부과된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후기 잠녀와 전복진상역에 대하여 인조실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탐라지 등을 통해 해석하였다. 개항 이후에는 해녀들의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소득이 증가하던 상황, 일제강점기 하에 바깥물질을 나가 고난을 겪어야 했던 해녀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한 획을 그었던 해녀 항일운동 전개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안미정(1998)은 제주해녀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이미지,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60-197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개발에 아울러 해녀의 이미지는 부지런하고 강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주도와 제주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1970년 이후에는 제주도에 관광개발이 일어 제주해녀를 젊고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상품화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제주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체성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당시 60대 이상 해녀들은 부지런하고 강인하다는 이미지가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50대 해녀들은 타인이 자신들을 못살고 천하게 본다고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여성학적 관점에서 해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조혜정(1988), 권귀숙(1996)이 있다.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좌혜경 외 9인, 2006)[9]는 제주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학, 역사, 민속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해녀와 제주해녀문화를 활용하는 측면의 연구들은 주로 2010년대에 이루어졌다.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그 보존에 대한 관심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이 뒷받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활용 분야는 관광, 교육, 예술 분야에서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관광 분야에서 현홍준·서용건·고계성(2010)[10]은 제주지역 해녀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9) 좌혜경 외 9,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서울 : 민속원

들이 느끼고 있는 선택속성 인식 및 관광자원화가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조사하고 현재 여건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영상산업과의 연계, 해녀공연장과 체험장 제공, 제주해녀 관광상품 전문가 양 등을 제시하였다. 유형숙·이성호(2011)[11]는 해녀를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보고 부산광역시 '해녀관광' 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녀에 관한 인지도, 친숙도 및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해녀의 삶과 지식 등을 통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술분야에서는 제주해녀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의

Ⅰ. 제주해녀문화 개념과 가치

1. 제주해녀문화의 개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주해녀문화는 말 그대로 제주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생업활동을 해온 여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해 정의를 내린 많은 학자들 중에는 영국 인류학자 타일러(E. B. Tylor)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타일러는 문화를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법, 도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이나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총체' 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비추어볼 때, 제주해녀문화는 제주 여성들이 과거에서부터 행해온 어업 행위와 그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2]

---

10) 현홍준 외2인, 2010,「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탐라문화』제37호

11) 유형숙·이성호, 2011,「부산광역시 "해녀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동북아관광연구』제7권 제1호

12) 해녀에 관한 행정적 개념은, 관련 조례에 정의된 바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해

제주해녀문화는 제주해녀가 습득한 고유의 물질 기술·민속지식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인 신앙(영등굿, 잠수굿, 해신당), 해녀노래, 해녀공동체, 도구와 옷, 언어, 공간, 관습 등을 포함하며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생업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좌혜경 · 강정식, 2014) 해녀문화와 관련된 유 · 무형의 자원들 또한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는데, 우선 유형의 자원에는 해녀들이 사용했던 물옷과 물질도구들, 불턱, 굿을 하던 해신당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이들은 주로 제주도의 해안에 위치하여 제주의 해안선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형의 자원들에는 해녀문화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녀공동체 문화가 있다. 여기에 해녀의 물질 기술, 민속 지식들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다른 무속신앙들 또한 해녀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해녀문화가 유산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 각 제도에서의 개념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보았다.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각 4개의 제도들은 제주해녀문화의 각 가치요소는 거의 일치한다. 제주해녀문화가 '생업'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

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해녀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는,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제주해녀문화의 주체인 해녀들이 각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어촌계에 속해 있으며 주체적으로 해녀회를 구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해녀문화와 관한 행정적 개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로 이 유산들을 관리하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제주해녀문화의 무형유산에는 가장 중요한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그리고 해녀노래, 어로 도구, 해산물 명칭 등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 공동체 문화, 신앙 및 의례가 있다. 우선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독특한 물질기술 및 관련 민속지식들이 있다.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은 쿠로시오 해류권의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어업형태이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위주로 행해져왔으며, 제주 어촌마을 여성들의 공동체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 여성들이 지닌 물질기술과 민속지식들은 그들의 가족,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을 통해 도제식으로 전승되어왔다. 숨을 참는 법, 물속에 가라앉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얕은 곳에서 시작하여 깊은 곳에 사는 해산물 채취방법 등을 전수받았고, 해산물 채취 시기, 바람과 날씨 예측 등 물질작업에 필요한 민속지식들도 전수받았다.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민속지식들은 각 어촌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이 전승하지 않는다면 보존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지적 재산들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녀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무형문화유산의 요소인 '해녀 노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작업을 할 때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동요이다. 때문에 해녀 노래는 해녀들을 통해 구비전승되면서 해녀 공동체의 정서, 사고, 인식이 잘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노래 가사가 제주어로 이루어져 노래의 외형적으로도 제주의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노래의 내용은 해녀들의 일터의 현장, 노동의 한계와 고통, 삶의 기쁨과 슬픔 등 해녀들이 느끼는 서정과 제주여성의 민속 등을 담고 있다[13].

1971년에 해녀노래는 성읍민요와 더불어 '제주민요'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었다가 1989년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독립적으로

13) 좌혜경, 2011, 「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해녀노래」, 『제주해녀의 재조명』, 232쪽

지정되어 보유자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에 다른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해녀노래의 전승을 위한 보호조치로는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된 해녀박물관 보유자 초청 어업노동요 전승교육이 있다. 해녀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부터는 '찾아가는 해녀노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해녀노래 교육을 원하는 어촌계 해녀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을 마치면 현장 공연 또한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러 민속축제에 참여하여 공연한 바 있고, 국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해녀노래 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해녀노래에 대한 방송사의 자료수집 및 영상 제작 사업도 꾸준히 진행돼왔고, 해녀노래 연구와 학술심포지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해녀노래가 지닌 가치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올 수 있었다.

앞서 유형 유산에서 다루었던 해신당과 관련하여 무형유산인 신앙 및 의례도 제주해녀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바다에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잠수굿·영등굿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속 의례가 있다. 마을마다 행해져 왔는데, 현재에는 실시하는 곳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71호로 지정되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보다 앞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바람의 신)에게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2월의 세시풍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으며,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에서 전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매년 열리는 영등굿은 굿을 주재하는 심방을 비롯하여 보존회 회원들과 이들을 도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골(주민들)' 및 유지, 동사무소 및 수협·해양경찰 등 관련 공무원과 직원들, 문화재 관계자와 연구자, 구경하는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굿판을 벌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마을굿이다.[14]

14) 문무병. 20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안-」,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1981년부터 기능을 보유한 심방들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연구자와 마을의 원로, 연희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련장과 연수실을 갖춘 보존회로 발전하였다. 보존회는 1981년 초대 예능보유자 안사인 옹과 이후 김윤수 심방이 2대 예능보유자로 보존회를 이끌고 있으며 여러 전수조교들이 매주 토요일 전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을 통해 보존회를 이끌어갈 후세대들을 키워나가고 있다.[15] 문화재청은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전승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후계자를 양성하고 일반국민의 체험연수 활동 등 전통문화를 보급·선양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16] 이에 따라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2015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전승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형유산에는 제주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는 마을어장과 해신당 및 불턱이 있고, 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가 있다. 제주 해안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 중에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유형유산으로 해신당과 불턱이 있다. 해신당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와 해녀들이 풍요와 안전을 기하기 위해 신을 모시는 마을의 신당이다. 해신당은 해안에 위치한 어촌마을마다 존재했다. 이곳에서 굿과 같은 의례가 이루어졌으며, 민속신앙의 증거가 되는 유형유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유산으로는 불턱이 있다. 불턱은 해녀탈의장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해녀들이 물질작업 전후로 불을 쬐고, 해녀 간 교류를 이루던 공간이다.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오래전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착용하였던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옷과 물질도구로는 물소중기, 물적삼, 물체, 테왁망사리, 족쉐눈, 쉐눈, 눈곽, 빗창, 호맹이, 종개호미, 작살, 성게칼, 성게채, 질구덕 등이 있다.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는 유네스코 인류

『제주해녀의 재조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53쪽
15) 문무병, 2011, 위의 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53쪽
16) 문화재청, 2013, 『문화재연감』, 259쪽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단순한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보존도 가능해졌다. 해녀들의 테왁만들기, 물옷 만들기 등은 해녀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해녀축제에서 테왁만들기 대회 등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림 1] 물질도구 (자료 : 제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2. 제주해녀문화의 유산으로서의 가치

제주해녀문화의 각각의 유·무형적 요소들은 제각기 가치와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제주해녀문화로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승되어왔다. 사회·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요소들의 모습, 방식 또한 변화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제주해녀문화는 어느 한 시기에 고착화된 형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제주해녀문화의 어떠한 특성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이는 곧 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존 원칙처럼 작용될 수 있다.

1) 역사성

유산은 역사 혹은 과거와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산이란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유산의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빼놓을 수 없다.

17) 한숙영·김사헌, 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1권 제3호, 213쪽

해녀의 존재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문자왕 13년(503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전복에서 나온 진주를 뜻하는 “가(珂)라는 어패(魚貝)가 섭라(涉羅 : 탐라의 또 다른 이름)에서 생산된다” 는 구절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명확한 문헌기록을 통해 제주해녀가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여 관아에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세기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진상역』의무가 사라졌고, 구한말 ‘계’의 형태로 자생적인 어업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18], 일제강점기에는 제주도 경제 발전 및 어민 생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19]

2) 공동체성

제주해녀문화의 유·무형 요소들은 전적으로 해녀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해녀공동체는 해안의 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규약을 만들어 작업일수, 채취 해산물의 크기 등을 규제한다. 또한 해녀들의 물질작업은 여러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업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서로간의 결속력을 강하게 유지시키며, 물질작업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한 의례를 함께 하고, 생활 전반을 공유하며 해녀들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3) 지속가능성

제주해녀문화가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문화로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20]즉, 유산의 가치를 전승함에 있어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1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증대 방안』, 재인용, 제주특별자치도, 2016,『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57쪽

19) 동아일보, 1920년 4월 20일자, ‘가련한 해녀의 운명’, 재인용, 박용옥, 2011, 「제주해녀 항일투쟁과 그 여성사적 의의」, 『제주해녀의 재조명』 , 32쪽

20) 김용구, 2016, 「지속가능한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문화재』 제49권 제3

끼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2015년 9월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이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지속가능개발의 추진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였다.[2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전문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개발을 보장함'을 밝히고 있고 제2조 정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고려해야 할 대상은 지속가능개발 개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2)] 지속가능개발은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보호, 평화' 네 주요축으로 이루어지며, 무형문화유산은 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체제를 거쳐 전승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니 재창조하는 창조성의 근원,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과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며, 문화다양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에 입각해 보면, 제주해녀문화의 유무형 유산은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녀들의 물질기술을 통한 어업활동은 공동체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어업활동을 통해 채취한 해산물은 유통되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 직업으로서의 위험부담, 등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방향성을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에 두고, 세부전략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

호, 문화재청, 262쪽

21) 김용구, 2016, 위의 글, 257쪽

22) 김용구, 2016, 위의 글, 260쪽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지속가능개발 지침을 참고하였다.

<표 1> 운영지침의 국가적 수준의 무형문화유산보호와 지속가능개발 주요내용

구분	하위분야	주요내용
포괄적 사회개발	식량안전	•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식과 관습이 농생물 다양성 유지, 식량안전, 기후변화 극복에 공헌하는 바에 대한 연구
	보건	• 보건관련 지식과 관습의 연구, 전승 증진 및 접근성 향상
	양질의 교육	•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식·비공식 교육제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잠재력을 활용 • 다양한 교육적 관습 및 제도 간 협력과 상호보완 증진
	양성평등	• 성별 간, 공동체간 상호존중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존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접근과 지속가능한 물의 사용	•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 증진
포괄적 경제개발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생계	•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공동체의 수입창출 등에 대한 연구 •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수입의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보장 및 소유권 박탈 없도록 보장
	생산적 고용과 양호한 일거리	•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공동체에 양질의 일거리 창출 증진 •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고용과 일거리 창출에서 수혜자가 되도록 보장
	무형문화유산보호에 있어 관광의 영향	• 관광에 활용될 무형문화유산의 잠재성과 관광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에의 영향에 관심 • 무형문화유산의 관광의 수혜자가 되게 하고 관광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의 의미 생명력을 보장
환경적	자연과 우주에 대한	• 전통지식 보유자로 공동체 등의 인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지속성	지식과 관습	• 전통지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 증진 •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조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환경적 영향	• 무형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환경영향 연구 • 친환경적 행위 증진을 위한 조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체 기반 회복력	• 공동체를 기후에 대한 전통지식 보유자로 인정 • 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 증진 • 공동체의 기후지식 접근 촉진 및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에 통합
무형문화유산과 평화	사회적 화합과 공평	• 사회적 결속력 강화에 있어 무형문화유산보호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향상 • 무형문화유산을 분쟁 예방 및 해결의 수단으로 고려
	분쟁의 예방 및 해결	• 무형문화유산의 분쟁 예방과 평화적 해결 공헌에 대한 연구 증진
	평화와 안전의 회복	•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공헌에 대한 연구 증진
	지속적인 평화의 확보	• 원주민, 이주자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 문화 간 대화와 문화다양성 보호행위의 평화유지 잠재력 실현

(자료 : 김용구, 2016,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문화재』, 문화재청)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Ⅱ. 제주해녀문화 지정 및 등재와 의의

제주해녀문화는 2015년 ‘제주해녀어업’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되었고, 2016년 ‘제주해녀문화’로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2017년에 ‘해녀’로 지정되었다.

어업유산과 무형문화유산제도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무형문화유산인 경우, 크게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지정 대상을 구분하여 이 중 무형에 속하는 반면, 어업유산은 유형과 무형을 모두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해녀’인 경우 한의학, 농경·어로와 관련된 민속지식으로서 지정되었지만, 해녀의 특성상 민속지식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뿐만 아니라 신앙 및 의례, 해녀노래 등과 같이 해녀의 활동과 함께 전승되어온 문화적 환경도 전승 요소로 배제될 수 없으며,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제주해녀문화’인 경우도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에 해당하여 등재되었지만,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으로 정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무형의 문화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유·무형의 것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업유산의 가치요소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어업유산의 경우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부각된다.

정리해보면, 제주해녀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접근하는 경우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적인 활동의 전승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어업유산으로 접근하는 경우 자연친화적인 전통 어업방식을 통한 생물종다양성의 증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두 유산제도를 특징지어볼 수 있다. 다만, 두 유산 모두 제주해녀문화의 전통 기술과 지식을 유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유산이 지닌 전통지식과 기술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

점에서 유산이 지속가능하려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둘러싼 전승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가 제시하는 대상과 기준은 유산이 지속가능성을 지니기 위한 요소들을 모두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각각의 유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특성, 유산의 전승환경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유산관리를 할 때에는 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유산의 전승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전승공동체에 대한 융통성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표 2> 각 제도별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요소

제도 / 가치 요소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국가중요 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	○	○
신앙 및 의례	○	○	○
해녀노래	○	-	○
공동체 문화	○	○	○
해신당 및 불턱	-	○	○
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	○	○	○
마을어장	-	○	-

제주해녀문화는 제주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어업활동을 해온 해녀들의 문화이다. 해녀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표 2> 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창조하고 전승해왔다. 따라서 제주해녀문화란,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신앙 및 의례, 해녀노래, 해신당 및 불턱, 물옷과 물질도구 등 해녀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창조해온 각각의 유·무형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유·무형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요소, 즉 해녀공동체와 공동체의 규율, 구조 등의 공동체 문화도 포함할 수 있다.

해녀공동체는 자연·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각각의 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현재까지 전승시켜 왔다. 또한 지역의 어촌계, 마을, 지역민들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교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렇듯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기능하였기에 이를 통틀어 제주해녀문화라 개념 짓고자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문화재청은 2017년 05월 01일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2015)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특이하게도 '해녀'는 공동체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이 실현되기 때문에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7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둘째,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셋째,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넷째,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다섯째,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여섯째,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일곱째,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다. 이 중 '해녀'는 셋째 조항의 전통지식 중 생산지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녀의 핵심기능은 물질기술 및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과 물질도구이며, 해녀의 핵심예능은 해녀노래와 신앙 및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23]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역사성 둘째, 학술성, 셋째, 예술성, 넷째, 기술성, 다섯째 대표성, 여섯째, 세대 간 전승 및 전형 유지이다.

23) 문화재청, 2016,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25쪽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구체적인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는 2015년 2월 4일에 제정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5-14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로 구분되어있다. 그러나 해녀의 관리주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는 크게 전승가치와 전승환경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표 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 전승가치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역사성	전승된 기간	○ 전승된 연수(年數)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예술성·기술성	고유성의 수준	○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형식미 · 내용미 · 표현미의 수준	○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기능성 정도	○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자료 : 문화재청, 2016,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핵심기능으로 꼽히는 물질기술 및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 및 물질도구와 해녀의 핵심예능으로 꼽히는 해녀노래와 신앙 및 의례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해녀' 는 각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및 기술성, 대표성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2016년에 조사된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해녀’에 대한 최초 문헌기록은 17세기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가 있다. 여기서 해녀(잠녀潛女라고 기록됨)는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캐는 여자’,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을 담당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24] 이외에도 여러 개인문집에서 해녀와 관련하여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해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전승 역사는 조선시대 역을 바치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탐라의 전복과 진주, 공물 및 진상품 역과 관련하여 추정한다면, 훨씬 더 이전 시기까지 추정해볼 수 있다. ‘해녀’들은 이후로도 바깥물질을 통하여 도외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문화 연구와 학술연구 자료로서 ‘해녀’는 다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는 해녀들의 어업형태 즉 나잠어업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 신앙, 문학 등 다양하게 한국문화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25] 이는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응해나가는 해녀문화의 변화상 등 다양한 학술연구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해녀’의 고유성은 앞에서 여럿 이야기하였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어업 형태로, 독특한 어업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생태지식, 어로도구, 공동체의 관습, 언어표현 등은 지속적으로 보전되어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26]

‘해녀’가 지닌 기능성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존하며 터득해온 물질기술과 지식에 녹아들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행함에 있어 쓰였던 물질도구들은 어장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해양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담긴 지식들 또한 의미가 있다.

‘해녀’는 제주를 본 발생지로 하여 바깥물질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각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현재에도 제주를 포함한 해안지역에서 해녀들이 물

24) 문화재청, 2016, 위의 책, 36쪽
25) 문화재청, 2016, 위의 책, 36쪽
26) 문화재청, 2016, 위의 책, 40쪽

질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조금씩 변화한 해녀문화로서 의미를 지닌다. 공통적으로는 생업문화라는 점에서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환경에 적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생태여성주의자(Eco-Feminist)라는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서 해녀는 한국 과 지역 문화에 있어 대표성을 띈다.

각 지역들 중 '해녀' 가 지역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가장 많이 띄고 있는 곳은 제주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약 4,000여명의 해녀들이 그들만의 규율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물질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표 4>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 전승환경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사회문화적 가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 현재의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관련 공동체 ·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	○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정도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기여도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하는 정도
지속가능성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전승주체의 전승 활성화	○ 전승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승활동 활성화 정도

(자료 : 문화재청, 2016,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전승가치와 함께 전승환경 또한 '해녀' 의 지정 기준의 요소가 되고 있다. 전승환경에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이 지정 기준이 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표 4>와 같다. 우선 사회문화적 가치 중 지속성, 정체성, 다양성을 보면, '해녀' 가 포함하고 있는 무형의 소산에는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생산공동체의 관습, 물질도구, 해녀노래, 신앙 및 의례가 있는데,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은 해녀 개개인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대대로 지속되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공동체의 관습은 각 지역마다 어촌계가 있어 어촌계단위로 자율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역

별 해녀협동조합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물질도구와 해녀노래인 경우 각각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신앙과 의례인 경우는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영등굿, 잠수굿, 마을굿, 요왕굿 등의 형태와 이름으로 매년 18개의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

해녀들의 기술과 지식은 현재도 제주와 울산, 거제, 포항 등 각 지역에서 생업문화로서 꾸준히 이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해녀 인구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해녀 인력 양성 학교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기도 하다. 제주에 한수풀해녀학교, 법환잠녀마을해녀학교가 있고, 거제에 거제해녀아카데미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해녀'의 가치이자 보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그리고 이를 이행할 '해녀' 자체로 보이고 있다. '해녀'와 해녀의 핵심기능 및 핵심예능은 해녀들의 공동체문화를 중심으로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해녀 생태공동체의 관습과 이를 포괄하는 공동체성 또한 '해녀' 유산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2016년 11월 30일(현지 기준)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1997년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에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대표·긴급목록으로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이다. 협약 제2조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이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

식, 기술뿐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문화 공간 모두' 를 의미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이 건축물 등의 유형 문화재에서 형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이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인증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협약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범위 및 특징을 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는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은 5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 둘째,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셋째,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한다. 넷째,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둘째,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셋째,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넷째,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다섯째,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2016년 11월 3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는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27]으로 부합하

27)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제11자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여 등재를 인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80세에 이르는 여성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산소 마스크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심 10m 깊이에 잠수하여 전복이나 성게 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한다. 바다와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제주해녀들은 매일 최대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작업 중 수면 위로 올라와 '숨비소리'라 불리는 독특한 소리를 내며 숨을 쉰다. 해녀들은 경력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으로 분류되며 상군이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잠수하기 전 해녀들은 잠수굿을 통해 안전과 풍요를 위한 의례를 지낸다. 이와 같은 모든 물질과 관련된 지식은 지역의 어업권을 소유한 가족, 이웃, 지역어업조합, 해녀회, 그리고 해녀학교, 교육기관, 해녀박물관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라는 섬의 지역적 특성과 정신을 대표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과 지역사회참여를 통해 물질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신청서는 제주해녀문화가 어떻게 지역 사회의 본질적 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하고 어떻게 공동체 정신 회복에 기여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제주 섬에 살고 있는 대다수가 제주해녀를 알고 있다. 해녀 공동체는 안전과 풍요를 위해 의례를 지낸다. 잠수 기술은 해녀공동체의 지도자역할을 하는 선배 해녀가 후배 해녀에게 전수하며, 기술 전수를 위한 해녀학교도 설립되어 있다. 일부 지역의 해녀 공동체는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화 문화적 연속성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제주 해녀들이 잠수할 때에는 일부 진보된 어업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해녀문화는 기술의 진보와 가계 소득에 기여하는바 여성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제주해녀문화는 지역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 문화재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고, 자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 유사한 관습을 지닌 다른 공동체들 간의 문화간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풍부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제주해녀문화는 시, 소설,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주제가 된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셋째, 과거에서부터 현재 및 향후 조치는 제주해녀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전문 집단 및 주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포괄적 틀을 구성한다. 향후 제안된 조치는 홍보, 해양 자원 관리 및 해녀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안된 보호 조치에는 수입을 위한 잠수와 관광객들을 위한 잠수, 그리고 잠수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잠수협동조합의 대표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조치의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넷째, 제주 해녀 공동체, 연구자, 무형 문화유산 전문가, 그리고 제주 지방 정부가 모든 등재 과정에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마을 어업협동조합과 100개 단체 협의회장에게 등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

다섯째, 제주해녀문화는 2011년에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록되었다. 이 목록은 지역사회, 단체, 관련 비정부기구, 개인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성되었다.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문화유산관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해녀문화의 각 요소 중에서도 여성 권리의 신장, 공동체 문화의 지속성, 자연친화적인 민속지식과 기술 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공동체와 관련 기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보존 노력 또한 중요한 등재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의 등재는 등재 자체로 그 의미를 다 한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수단으로서 보존 근거 마련의 의의가 있으며, 사후 유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해양수산부는 2015년 12월 16일 ‘제주해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다. ‘제주해녀어업’은 제주바다에서 ‘물질’이라는 생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업활동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해녀들에 의해서 창안되고 생성되어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어업활동을 말한다. 제주해녀어업유산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유·무형의 생업문화 유산을 통틀어 지칭한다.[28]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해당되며 제주도 면적 1,848㎢으로 해안선 254㎞ 가운데 해안가 마을어장(해안선에서 1.5㎞) 14,346ha가 대상지이며, 해신당, 불턱 등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478.6㎢) 및 동종 어업유산도 대상지에 포함된다.[29] 해녀들은 맨몸으로 숨을 참고 수심 15m까지 바다 속으로 들어가 소라, 전복, 해삼, 미역 등을 포획, 채취하는데 해녀들의 이러한 어업 형태를 전통어업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조 이전의 기록을 보면 해녀들의 채취물인 진주나 전복 등 조공과 관련된 자료가 주종을 이루어 최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0]

국가중요어업유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대상은 크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다.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 가공시설, 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 생물다양성을 갖춘 유형적인 것과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 전통지식, 어업문화, 사회조직을 갖춘 무형적인 것이 포함된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28) 제주특별자치도,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17쪽
29)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설명자료, (검색일 : 2017. 11.30)
30)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설명자료, (검색일 : 2017. 11.30)

<표 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평가항목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어업 유산의 특징	수산물	○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주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 ○ 생산물의 국민 식량수단으로의 활용정도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증진
	지식체계	○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어업유산의 보호·보전을 위한 관리기술 보유
	전통문화	○ 어업유산 관련 문화·의식 형성 ○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기술의 전수
	경관형성	○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역사성		○ 6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사성 보유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 보유
지역성	지방자치단체정책	○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관리 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정책적 지원 ○ 어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등
	인식도	○ 해당 지역주민의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등 ○ 어업유산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등
	지속가능	○ 향후 어업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 ○ 어업 외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가능성
	가치제고	○ 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계획의 타당성여부

(자료 : 국가중요어업유산 홈페이지, 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표 5>는 FAO 세계농업유산(GIAHS)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어업유산 제도에 맞게 조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평가항목에 해당한다. 크게 유산의 특징, 역사성, 지역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주해녀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보전·유지 및 전승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강승진·좌혜경·유철인(2015)[31]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 ‘제주해녀어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녀’는 ‘좀녀’, ‘잠수(潛嫂)’라고도 불렸는데, ‘해녀’는 한국에서 일반화된 호칭이며, 제주에서는 주로 ‘좀녀’, 조선시대 고문헌에는 ‘잠녀(潛女)로 나타난다. 1895년부터 제주해녀가 경상남도로 첫 바깥 물질을 떠났고, 전라도, 강원도, 다도해, 경상북도, 함경도 등 한반도부 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오사카, 중국 칭따오(青島)와 따리엔(大連)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많은 곳에 바깥물질을 나갔다.

제주해녀어업의 특징을 지정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제주해녀는 산소공급 장치 없이 보통 10미터 깊이의 바다 속으로 약 1분간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여름에는 6-7시간, 겨울철에는 4-5시간, 연간 60일 정도 작업을 이어나간다. 2000년 이후에도 해녀의 비율은 계속해서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근래에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내 어업활동의 중심이 해녀의 물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은 잠수기술에 따라 자신들을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나뉘며, 상군 해녀는 오랜 기간 물질을 하여 물질기량이 뛰어난데, 암초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또한 마을어촌계가 마을어장의 입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녀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고, 어촌계 산하 해녀들의 자발적 조직인 잠수회(潛嫂會)에 가입해야 한다.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며 작업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물질에 대한 지 식, 물질 요령, 바다밭의 위치 파악 등 물질 작업에 필요한 정보 와 기술을 전수하고 습득하며, 해녀 간 상호협조를 재확인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해신당은 해녀들이 물질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장

31) 강승진·좌혜경·유철인, 201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소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위해 잠수굿과 용왕굿이 치러진다.

해녀노래는 주로 돛배의 네(노)를 저어 비양도, 지귀도와 같은 섬으로 물질 작업 나가거나 육지로 출가물질 나가면서 부르기도 하고, 테왁을 짚고 물에 뛰어들어 '깃물질' 작업을 하면서도 부른다.

제주도내 어촌계는 모두 100개소로 제주시 56개소, 서귀포시 44 개소가 조직되고, 이들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은 14,346ha로 제주시 7,738ha, 서귀포시 6,608ha이며, 2014년 마을어장의 생산실적은 4,106톤으로 그 금액은 244억 1,600만원에 이른다.

해녀와 관련된 문화자원인 불턱, 도대불, 전통포구 등이 바다와 어우러지고,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와 테왁이 있는 경관을 이룬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바다 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개닦이' 혹은 '바당풀캐기' 를 하며, 소라나 전복의 종묘를 마을어장에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제주해녀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4.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어업' 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에 등재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은 일정유산이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상호적응으로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과 경관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32)]

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속해있는 해안선 254km 가운데 해안가 마을어장(해안선에서 1.5km) 14,346ha이며, 해신당·불턱 등 제주해녀관련 문화재(478.6m2) 및 동종 어업유산(도 전역 분포)이 포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100개 어촌계 해녀공동체의 바다 어장과 관련된 유·무형의 해녀 생업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경관을 지닌 공간이

32) 강승진·좌혜경·유철인, 2015, 위의 책, 17쪽

해당된다.[33]

GIAHS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첫째, 시스템 기준(systems criteria)에 따라 독창성과 비범성・현저한 특징・지속성의 역사・세계적 중요성, 둘째 정황적 기준(contextual criteria)에 따라 대표성・외부 위협・정책 및 개발 관련성, 셋째 프로젝트 실행 기준(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에 따라 프로젝트 통합성・공동 펀드 능력・프로젝트 접근성 등 모두 10가지를 등재기준으로 삼았다.[34] 이후 '현저한 특징(outstanding characteristics)' 등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①식량・생계수단의 확보(Food and livelihood security)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③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Knowledge systems and adapted technologies) ④농업문화와 사회제도・관습(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Agri-Culture) ⑤수려한 경관, 토지・수자원 관리특성(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등 5가지의 등재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35]

①식량・생계수단의 확보는 지역사회의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식량・생계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위한 비축과 교환이 포함된다.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은 농업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생물다양성을 내용으로 한다. ③전통적 지식・농업기술의 계승에서는 농업지식, 기술, 관리체계, 관습, 규범을 내용으로 한다. ④농업문화와 사회제도・관습은 세계관, 가치체계, 농업문화적 관례, 지역조직을 내용으로 한다. ⑤수려한 경관, 토지・수자원 관리특성은 환경적・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관리로 형성된 경관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토지 모자이크, 관개체계, 계단식 논밭이 해당된다.[36]

33) 제주특별자치도, 2016,『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17쪽
34) 농촌진흥청, 2016, 『농업・농촌유산의 유지・보전 방안 연구』, 110쪽
35) 농촌진흥청, 2016, 위의 책, 110쪽
36)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홈페이지, http://www.fao.org/giahs/giahs-sites/en, 정명철・문효연・김미희, 2014, 「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농촌 무형유산 분류체계 연구」,『농업사연구』 13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72~73쪽, 재인용.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3장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체계 현황

제1절 제주해녀문화 전승정책의 전개과정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2000년대 이전 수산 중심의 지원 정책 시기, 둘째, 2000년대 이후 문화 개념의 도입 시기, 셋째, 2015년 이후 유산으로서의 제도적 관리가 활발해진 시기이다.

정책 흐름 전개의 주요 특징은 정책 성격, 정책 참여자,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정책의 성격이 해녀 생계 지원으로부터 해녀문화 보존과 향유에 대한 정책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정책 참여자가 관 주도에서 점차 민간 참여가 활발해진 점, 해녀문화유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해녀문화유산과의 신설로 정책 전문성이 강화되고 정책 우선순위가 승격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해녀 어업환경 개선과 유지를 위한 지원에서 점차 해녀문화 향유 정책이 활성화되었다. 초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 정책은 주로 해녀들의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녀복 지원, 탈의장 시설 건립,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세계화와 맞물려 지역문화로의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해녀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2009년에 실질적으로 제주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해녀문화가 지닌 가치를 도민과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그 하부 정책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표방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초작업과 함께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난다.

과거 제주 해녀와 관련된 정책은 전적으로 관의 주도하에 전개되어 왔다. 이후 해녀관광이 시작되고, 해녀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연구자들에게도 해녀는 중요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해녀문

한국문화유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연구자들의 역할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확산시킨 데에는 언론과 민간의 활동들도 돋보인다. 제주지역의 신문사인 제민일보는 2005년부터 '제주 잠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한가' 에 대한 특별 기고를 시작으로 하여 11년간 기획보도를 진행하였다. 11년간 축적해온 기사 자료자체로도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에 기여한 기록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8년 비영리법인인 제주해녀문화보존회의 활동도 괄목할 만하며, 해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도 제주해녀문화 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 주체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사후조치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생업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2017년 도 해양수산국 소속의 해녀문화유산과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해양산업과에서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주해녀문화가 생업과 문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산 관리를 세계유산본부에서 맡는 다수의 유산과 달리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Ⅰ. 수산 중심의 지원

과거 해녀들은 왕조시대의 전복, 미역 등 해산물을 진상하는 역할로서 생각되어져 왔다. 진상역이 폐지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의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직업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이 때에 해녀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를 지나게 되면서 직업이 다양해지고, 여성들의 직업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는 해녀 수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해녀 작업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시작

한국문화유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하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해오고 있다.

광복 이후 제주 해녀의 권익에 대한 행정차원의 논의는 제주 제1대 도의회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2년 제5회도의회에서 '해녀어업권 옹호에 관한 건의의 건' (허만필 의원 외 5인 발인)에서 해녀입어전용어장에 잠수기선과 저인망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여 해녀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며 가결되었다. 이 잠수기선은 1870년대에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잠수기어업은 마을어업과 마찬가지인 연안어업으로 해녀들과 도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었다. 어업대상 수산물도 마을어업과 같이 패류, 해조류 등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산소공급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나잠어업과 달리 잠수기어업은 산소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잠수복을 착용한 잠수부가 포획·채취하므로 해녀들보다 어획능률이 뛰어났다. 그러나 이는 기존 마을어업구역 내에서 잠수기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분별한 어획이 자원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잠수기어선이 사라진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37]

출가해녀 권익문제에 대한 논의도 53~54년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경북지방에 출가한 제주도 해녀들이 비싼 입어료 및 각종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권익이 계속 수탈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제주도와 도내 어업단체들이 해무청[38]에 여러 차례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53년 3월 경상북도와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9] 광복 후 처음 출범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 해녀인권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이 사례는 제주 내에서 해녀의 권익 보호가 오래전부터 중요시되었다는 것, 바다어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들의 생계

37)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수산60년사』, 253쪽
38) 해무청(海務廳)은 수산, 조선, 해운, 항만 공사와 일반 항만 및 해양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2월 17일 발족하였으며 1961년 10월 1일 폐지되었다.(위키백과)
39)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회의록

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해녀들이 소속되어있는 조직인 어촌계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되고 196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지구별 어업조합과 어촌계가 설립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75년에 수협과 더불어 어촌계가 마을어장의 면허어업권의 취득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어촌계가 우선하도록 하였다.[40] 이로써 1976년부터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원 20인 이상이 마을을 단위로 하여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의 잠수회는 어촌계의 하부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41]

마을어업권자인 어촌계가 해당구역 행정의 장(시장)으로부터 '어업면허증' 과 어업자원 보호법에 의한 '허가증' 을 받는다. 또한 어촌계장은 해녀들과 '마을어장 행사계약서' 를 10년 단위로 체결해서 계약한다. 자신이 가진 어업권의 행사 관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42] 이 어촌계들은 제주도 수협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101개의 어촌계가 존재한다. 각 어촌계는 어장 경계 해산물의 채취자격 및 방법 기간과 종류에 따른 채취방법, 금채기간, 조업규정, 감시원 규정, 농번기 입어금지, 대리 채취규정에 대하여 해녀물질 관습을 규약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해녀 공동체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해산물 판매와 해녀들의 복리 증진에 힘쓴다.[43]

1970년대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가 고도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때부터 바다가 황폐해지고 해녀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2년도 해녀 수는 26,248명이었고 30세 미만이 30%를 넘었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도시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되면서 후속 세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44] 해녀 수가 60년대에 비해 1/6 수준으로 줄

40) 안미정, 2007,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1쪽
41) 안미정, 2007, 위의 글, 41쪽
42) 좌혜경 · 권미선, 2009,「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제주도연구』32집, 239쪽
43) 좌혜경 · 권미선, 2009, 위의 글, 251쪽
44) 조한혜정, 2015,「제주해녀의 노동, 일, 그리고 삶: 젠더, 식민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여성과 해양문화』 2015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어들었고, 연령대 또한 고령화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이래 제주도와 수협에서는 해녀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파악하고 해녀들의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탈의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융자금과 지원금의 확대를 추진하고 의료수가를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45] 또한 도에서는 바다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바다환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해녀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70년대 중반부터 고무옷을 제공해왔다. 개량해녀복인 잠수복은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슈트'를 말한다. [46]

제주해녀들의 문화 또한 70년대 중반 고무옷으로 바뀐 후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추위를 막아주는 고무옷을 입으면서 작업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물옷을 입었을 때에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작업하던 것이 이제는 3시간에서 5시간을 훌쩍 넘어,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비례하여 해녀의 건강은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까지 고무옷이 막아주진 못했다. 또한 80년대부터는 물질이 시작되는 해안가에 있던 불턱이 많이 사라지고, 대신 현대식 해녀탈의장 건물이 들어섰다.[47]이 또한 해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킨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해녀들과 해녀들의 문화가 단순히 해녀군 만의 공동체와 소속감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웃인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여러 외적 요인이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제주해녀와 그 문화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감이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1996년에는 잠수복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조업여건이 열악한 해녀들의 조업능률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마을 어업에 종사하는 현직

45) 국토해양부, 2009, 『해녀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83쪽
46)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47) 유철인, 앞의 글, 115쪽

패류채취 해녀수를 기준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잠수복 1벌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다.[48]

Ⅱ. 문화 개념의 도입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의 여러 해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해녀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90년대에 해녀는 제주 관광산업에 있어 관광상품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세워진 해녀상들을 통해 외부에서 해녀들을 바라보는 인식, 관광상품화된 이미지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녀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해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해녀 문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무형문화유산등재를 위한 해녀문화 조사연구는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도내 교수, 해녀박물관의 학예사를 중심으로 해녀의 사회와 문화를 포괄적이고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제주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 해녀학의 가능성 모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녀의 삶과 문화를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해녀의 문화유산' 혹은 '해녀의 문화' 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의 해녀문화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떠오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프로젝트의 성과는 2006년 조사보고서와 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49]

한편 상기 연구프로젝트가 개시된 다음해인 2002년 여름(2002, 5, 31~6,30), FIFA의 제17회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었는데, 그 중 한 경기가 6월 1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한일공동개최, 특히 제주도에서의 개최라는 기념비적인 이벤트를 더욱 빛내기 위해 한국 제주

48) 국토해양부, 2009, 앞의 책, 83쪽
49) 우에스기 도미유키, 2011, 「'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운동 '글로컬리제이션의 관점에서」, 『제주해녀의 재조명』

도의 조직위원회는 개최지인 제주도에 어울리는 문화행사를 공모했다. 이 공모에 응하여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녀연구프로젝트팀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세계적으로도 한일양국, 특히 제주도에 특징적인 해녀 및 해녀문화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월드컵개최에 앞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해녀연구자들을 초청해서 '해녀의 가치관과 그 문화유산' 이라는 주제를 갖고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해녀의 물질과 사회생활, 의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후 해녀를 둘러싸고 '문화유산' 과 '문화재' 라는 표현이 서서히 증가했으며, '해녀문화' 라는 표현도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발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관계자들은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50]

반면, 2003년에는 제주도가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잠수어업인 즉 해녀들은 병·의원에서 잠수질병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았다. 2006년까지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마을어장에서 잠수를 하며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전직 해녀들에게 제주도가 '잠수어업인증' 을 발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행정시가 발급하였다.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2007년 개정되어 해녀들의 잠수어업인증을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제주 지역신문사인 제민일보에서 '제주해녀문화를 유산으로' 로 기획보도를 시작하였다. 제주해녀에 대하여 10여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보도되어오고 있다. 지역 언론으로서 '해녀' 라는 문화 영역의 발굴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이를 문화경쟁력으로 전환한 시도 등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에 있어 큰 역할을 기여하였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시책으로 국비 7억2000만원, 지방비 10억8000만 원 등 18억 원의 예산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고압

50) 우에스기 도미유키, 2011, 위의 책

챔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압챔버시설은 기압을 높이는 기기로, 잠수병 환자에게 고압의 산소를 공급하여 체내에 축적되어있는 질소를 배출시키는 대형캡슐 형태의 장비다. 잠수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에 따라 무료 지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제주의료원에 단실챔버 1기만 운영해 연간 200여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고, 2010년에는 277명이 찾았으며, 이 중에는 잠수어업인 외에도 다이버, 일반인이 치료를 받았다.[51]

2006년에는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하도리에 '해녀박물관' 이 개관되었다. 연면적 4,002평방미터(1,210평) 지상4층의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영상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전망대, 뮤지엄숍,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한해 평균 관람객이 20만 명 정도에 이른다.[52]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찾아가는 해녀노래 교육' 을 실시하여 10개 어촌계 해녀들을 대상으로 해녀노래 전승기반을 확보하였다.[53]

해녀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보존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조례안이 2007년에 처음 제안이 된다. 이후 3년간의 협의 끝에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제2조에서 '해녀' , '해녀문화' , '출가물질' 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여, 향후 제주해녀문화 보존 계획의 대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다. 주요 사항은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예산 지원(제4조), 위원회 설치(제5조,제6조,제7조),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제8조), 연구기관 설립(제9조), 해녀와 관련

51)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두통 시달리는 해녀, 이제 '뇌선' 보다 '챔버' " (2010.03.12)
52) 제주발전연구원, 2014,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19쪽
53) 제주발전연구원, 2014, 위의 책, 26쪽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된 타 지역과의 교류(제11조), 해녀의 날 지정 및 홍보(제12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8년부터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서 한수풀 해녀학교가 운영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관에서 시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해볼만 하다. 운영은 매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수업 내용은 해녀도구 사용법, 잠수법, 호흡법, 수영법, 채취 중심의 해녀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54] 같은 해에 '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가 도 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해녀노래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 이은 세 번째의 제주해녀문화 관련 문화재 지정이다.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제주해녀문화가 제주해녀와 이들을 이루고 있는 유·무형 자원들이 한 문화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제주해녀들이 물질작업 시 여장조건과 작업 환경에 맞게 적절히 고안된 옷과 도구로 기능성과 함께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해녀들의 지혜와 민속지식이 담겨 있다.[55]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전승,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도정중점과제인 50대아젠더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국으로 일원화하여 해녀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2011~2015)을 설정하였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에 해당한다. 기본계획 수립 배경에는 그동안 제주해녀 문화가 지닌 가치에 대해 국내외 언론방송 및 학계로부터 관심과 평가가 높았고, 도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전승·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세계적으로

54) 제주발전연구원, 2014, 위의 책, 25쪽
55)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08년

한국문화재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독특하고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전승하는 목적으로 615억원을 투자하여 총 7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였다.[56]

<표 6> 제1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사업 및 투자계획(2011~2015)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61,516	12,120	10,174	14,754	15,204	9,264	
제주해녀축제	1,320	240	240	280	280	280	국비 + 지방비
제주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310	30	60	60	80	80	지방비
마을어장 보호 및 소득증대	46,244	11,398	8,724	8,714	8,704	8,704	국비 + 지방비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220	20	240	940	960	60	국비 + 지방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60	80	80	80	80	40	국비 + 지방비
해녀의 날 지정							비예산
해녀문화 홍보	11,062	352	830	4,680	5,100	100	국비 + 지방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2011,「제주해녀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안)」재구성)

2013년에는 해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어촌계와 해녀, 지구별 수협, 행정이 각각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56)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검색일: 2016.09.07)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본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제3조)하도록 하며, 해녀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제4조),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 목적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 진흥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Ⅲ. 유산으로서 제도적 관리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제주해녀어업'이 지정되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문화' 등재,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에 '해녀'가 지정되면서 국내·외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과 해녀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도에서는 해녀문화유산 전담 과를 신설하여 해녀문화유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수립되었던 도의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여 해녀문화의 가치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승활동과 활용 계획들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당 및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녀 양성교육과 어촌계 정착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유산 제도에 지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해녀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향후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에는 제주해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3개 분야·25개 사업에 141억 원 투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복지관련 사업, 소득향상,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뉜다. 복지관련 사업으로는 진료비 지원 50억 원, 물질작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색 해녀복지원 5억 원,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등 총 56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소득향상을 위해 소라가격안정지원, 패류 및 해조류 서식지 제공을 위한 투석사업과 전복, 오분자기 등의 수산종묘방류, 해녀 양성 저변확대 등 해녀학교 운영지원에 65억을,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등에 약 20억 원이 지원되었다.[57]

<표 7> 제주해녀문화 보존정책의 전개과정

년도		정책 흐름
2000년대 이전	일제 강점기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설립
	1950년대	-해녀어업권 옹호에 관한 건의 -출가해녀 권익문제에 대한 논의
	1960년대	-마을어장 이용 권한 (어촌계장과의 계약으로 허용)
	1970년대	-1971년 : '해녀노래' 도 지정 무형문화재 1호 지정 -고무옷(잠수복)을 입기 시작
	1980년대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지정
	1990년대	-1996년 잠수복 지원 -1999년부터 의료보장 차원의 진료비 지원
	2002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다이나믹 코리아 페스티벌 2002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개최
	200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2005	-제민일보 해녀 등재 기원 기획보도 시작
	2006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제주해녀박물관 개관 기념 제1회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 개

5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보도자료, 2016년

		최 -잠수진료센터 고압챔버시설 운영
	2007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작성 -제주해녀축제 개최
	2008	-해녀학교 운영 시작 -물옷·물질도구의 도 지정 민속문화재 제 10호 지정
	2009	-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주칠머리당영등굿’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1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안)마련 -제주도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 출범 -유색잠수복 제작 지원 -해녀 안전공제료 지원 -국가 무형문화유산 예비목록 등록
	2012	-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확정
	2013	-문화재청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종목 선정 -해녀 안전조업 깃발 배부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201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보류)
2015년 -현재	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재신청 -12월 국가어업유산 제1호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
	201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제주해녀협회’ 설립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체계 현황 분석

Ⅰ.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제도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 복지를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6년 11월 29일에 제정되어 2008에 일부 개정을 거쳐 2015년 12월 31일에 다시 한 번 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해녀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해녀,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녀이었던 사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각 호에 상응하는 남자 또한 포함된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우선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녀증은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

2015년 12월 31일 개정은 이전 조례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명칭을 잠수어업인증에서 해녀증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가 부족하여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한 바, 지원 대상 조건이 모호하여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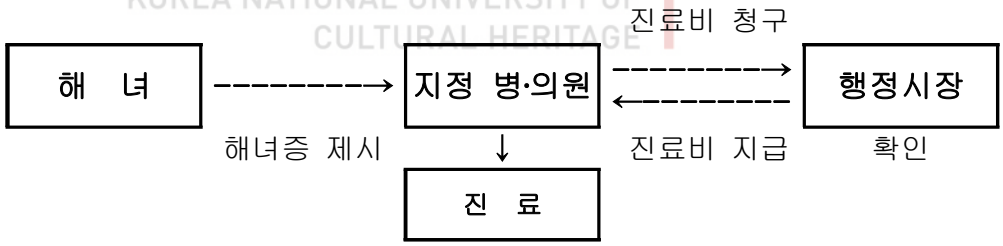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직 해녀가 아니면서, 대상지원 자격이 없는 전직 해녀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좁혀서 도내 거주하는 현재 물질조업하는 해녀와 만 65세까지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한하였으며,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의 해녀경력 5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58)]

현재 제주시의 경우에는 전직해녀의 진료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어촌계의 해녀들 중 10%의 확인서와 어촌계장의 직인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해녀증을 소지한 도내 해녀는 현직해녀 4,005명, 전직해녀 5,117명으로 총 9,500명으로 해녀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 진료기관은 행정시장이 지정한 병·의원만 해당되며, 진료비 국고(기금)[59)] 80%, 지방비 20% 부담을 하며, 향후 진료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비로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의 집행 절차는 <표 8>과 같다. 해녀들이 지정 병·의원에 해녀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 지정 병·의원에서 행정시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

<표 8> 해녀 진료비 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과, 2016,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58) 제주신보, “해녀 자격 없는데 의료비 혜택... 현직 해녀 뿔 났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6500(검색일: 2016.10.20.)

59)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9> 진료비 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3	2014	2015	2016	‘17.5
진료 연인원	178,746	188,812	208,716	214,083	223,464	194,976	237,808	84,197
연간 지원액	2,760	3,150	3,657	4,100	4,828	4,946	5,980	2,37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과, 2017, 해녀 잠수 질병진료비 지원사업 지원 현황)

조례에 따른 지원이 시작된 2008년에는 진료 연 인원이 178,746명이었고 지원액은 2,760백만 원이었다. 2015년까지는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2015년까지는 전·현직 해녀 모두가 대상이었으며, 1인 진료 제한 횟수가 없기 때문에 매해 연인원이 약 20만 여명이 진료를 받았다는 수치가 나온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1월 4일에『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60]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이하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제주

60)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open/law/current/current.htm (검색일: 2016.12.10.)

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 유산 등재 및 자원화,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그 밖에 해녀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제3조)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연구기관 위탁,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과 문화예술 및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 및 문화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해녀문화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이외에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제주해녀가 출가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지역 등과 교류하고, ‘해녀의 날’ 을 지정해야 한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들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해녀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5개년기본계획(2017-2021)은 총 8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크게 제주해녀문화 전승 관련 사업과 제주해녀 소득보전 관련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개 분야 중 사회적 개발과 관련되어 6개 분야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녀문화의 전승자로서 해녀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의료비 지원·작업 환경 개선 등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의 대중화를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활성화와 제주해녀문화 교과서 수록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업도 추진된다. 경제적 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이루어지고 있던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해녀 문화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제주해녀의 문화와 생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제주해녀문화 전승 및 학교 교육 활성화 분야에서 해녀유산 지킴이를 운영하여 제주해녀들의 물질 및 신앙생활의 공간인 불턱, 해신당 등 해녀유산에 대한 주민 주도의 보전,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3)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해녀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소속의 공립박물관으로 2006년 개관하였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근거로 두고 있다. 이는 박물관 운영 및 관람, 시설사용허가, 박물관자료의 복제 및 열람 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박물관이 설치되면서 제주해녀와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됨으로써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제주해녀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박물관 외관은 제주의 오름과 해녀들의 물질도구인 테왁을 상징한다. 제1전시실에서는 제주어촌의 모습과 해녀의 집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1960~1970년대 해녀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놓았고, 어촌의 세시일상을 배경으로 해녀의 생활, 신앙, 농사 등에 관한 유물들과 해산물을 이용한 소라, 전복, 성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모형과 생활도구를 전시하였다.

제2전시실에는 제주해녀들의 바다와 역사,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 제주해녀들의 공동체문화가 형성되는 장소인 불턱을 중심으로 테왁망사리, 눈, 빗창 등의 작업도구, 물소중이와 고무옷을 비교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해녀의 역사, 제주해녀항일운동, 해녀공동체와 관련된 각종 문서와 사회공익에 헌신한 해녀들의 사진과 영상자료를 전시하였다.[61]

제3전시실은 해녀들의 생애를 전시하였다. 첫 물질부터 상군해녀가 되기까지의 모습, 출가물질 경험담, 물질에 대한 회고 등이 실제 해녀의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된다. 이외에 어린이 해녀관, 영상실 등이 갖춰져 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사후조치로 2017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해녀양성 교육 및 어촌계정착지원, 민간위탁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61) 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검색일: 2016. 10.21)

있다. 기본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제4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수당 및 정착지원금은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6조). 그리고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제8조), 이는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해당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200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한함)의 건강보호 도모를 목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녀증을 발급
200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00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교육·연구기관 설립·위탁·교류·해녀의 날
201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녀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국제교류·전문 인력의 양성 - 지원 목적 부합성에 관한 지도·감독, 해녀문화산업 육성 공로 포상
201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이 감소하고 고령화 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2.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1)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법률

‘무형문화재법(약칭)’ 이라고도 불리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제정되었다. 문화재청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활용 뿐 만 아니라 국민의 무형문화재 향유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2]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6장 시 · 도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8장 유네스코협약 이행,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승자, 명예보유자에 대하여 그 역할과 책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무형

62) 김명하, 2017,「한국 무형문화재 보전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하의 제도분석틀(IAD)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쪽

문화재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내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제2조의 7항은 “전승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자란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원칙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은 전형[63]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가 기존의 민족문화 계승을 넘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방향과 같이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 구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64]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보호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1-3항)

보호주체인 국가와 지자체는 무형문화재의 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기록화하여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여야 하고, 인간문화재인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유사명칭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여기서 전승자란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를 말한다.

제2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은 문화재청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그 내용은 첫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둘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63)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 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64) 김명하, 2017, 앞의 글, 24쪽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셋째,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넷째,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다섯째,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다.

법류에 따른 지원의 근거는 제 7장에 명시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하여 제37조(전승지원 등),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2조(인증의 취소),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어업유산과 관련한 법률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KIFHS)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경관·문화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한다.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어촌 방문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거 법령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5년 2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은 어업기반시설 등 유형적인 것과 어업기술 등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을 어업유산의 특징, 역사성 및 지역성으로 정하여 그 세부항목을 지정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절차는 7단계로, ①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총 3회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순으로 이루어진다. ②공모 신청서 제출하는데, 시군구 또는 시도단위의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③평가단계로 단계별 평가가 실시된다. 총 3단계로, 1차 서류평가→2차 현장평가→3차 최종평가가 이루어진다. ④국가주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는데, 해양수산부 「농어업인삶의질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의 12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다. ⑤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단계로, 지자체가 수립하고 해양수산부가 승인한다. ⑥사업시행단계로 지자체에 3개년 지원이 이루어진다. ⑦ 실적 및 정산 단계로 지자체는 사업을 종료할 시, 해양수산부에 실적 및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65]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Ⅱ.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조직

1. 중앙행정기관

1) 해양수산부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분리·독립됨에 따라,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농어업유산제도에서 농업유산과 함께 다루어왔던 어업유산은 2014년

65) 국가중요어업유산 홈페이지, https://국가중요어업유산.kr (검색일 : 2017. 11. 30)

에 해양수산부로 이양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 운영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2015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등 예산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농어업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해양수산부는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따른 지정절차 확립을 착수하면서, 중요어업유산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어촌의 다원적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30조의3).[66]

2)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 지정·등록·해제 및 관리,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현상(現象)의 변경이나 국외 반출 또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 등에 대한 허가, 문화재의 보존 및 정비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조선시대의 궁·능 및 중요 유적지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등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및 남북 문화재 교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조직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근거하여 차관급 정무직의 청장 1명, 차장 1명, 1관(기획조정관) 3국(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문화재활용국) 4담당관 13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형

66) 주남희, 2016,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79쪽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조성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활용국에서 세계유산 등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그 산하의 전통문화교육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와 그 산하의 음봉분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와 산하의 3개 지구관리소(동부·중부·서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그 산하의 5개 지방문화재연구소(경주·부여·가야·나주·중원)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이 있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관리·보급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현재 제주해녀문화의 관리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관리와 같은 수산전문분야는 수산정책과에서 담당하되,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일임하고 있다.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학예인력은 1명에 해당한다. 또한 해녀박물관은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1명의 학예 인력을 두어, 해녀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은 현재 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산업과 내 해녀문화 TF팀과 함께 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해녀박물

관장을 비롯하여 12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1명이 학예연구사로 해녀박물관 교육을 운영하고 상설전시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해녀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의 사업들 중 교육, 학술교류, 문화행사 등이 해녀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해녀박물관 운영 현황 중 해녀문화 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들을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1) 학술연구

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를 대내외로 홍보하고 연구하며 잔존하는 해녀문화를 찾는 작업들을 시도하였고, 해녀문화의 지속적인 보존 전승을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67]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그 간의 제주해녀 관련하여 연구된 자료들은 학술연구자료로 발간되고 해녀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발간 학술자료

바다의 어멍 제주해녀 (사진자료집)	○ 제주해녀의 삶을 주제별로 구성한 자료집 ○ 해녀작업 전후 준비과정, 작업중, 뱃물질, 물질작업, 귀환, 소득, 판매, 기원 등을 기록
제주해녀의 노래 (CD)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를 비롯 '출가해녀의 노래', '해녀놀이요' 수록
제주해녀 사료집	○ 고문헌속의 해녀기록, 제주해녀항일운동관련 신문기사 ○ 제주해녀관련 사회, 경제 신문기사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조사보고서)	○ 제주도내 100개 어촌계의 해녀수와 작업 현황, 바다어장의 실태, 해녀공동체 규약 및 무속의례, 해녀노래 채록, 해녀생애담, 해녀 언어와 문화 등
제주해녀노래집 (이어이어이어도사나)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해녀노래를 부르는 해녀들의 생애사 등
제주해녀의 재조명 (자료 모음집)	○ 2006~2010년까지 해녀 관련 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67)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해녀 나잠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서』, 57쪽

제주해녀 (핸드북)	○ 제주해녀 소개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핸드북
제주 해녀옷 이야기 (조사보고서)	○ 전통해녀옷 <물옷>과 개량 해녀옷 <고무옷>의 역사, 특징, 제작과정 및 고무옷을 만드는 사람들 조사
숨비질베왕 눔주지아녀 (제주해녀 생애사보고서)	○ 제주도내 65세 이상 전·현직 해녀 102명 생애사 조사 보고서 ○ 유년시절 물질 시작, 결혼-출산의 물질, 출가물질, 해녀회의 역사와 경험, 해녀의 신앙과 의례, 물질생애의 회고와 희망
The Story of Jeju Haenyeo Clothing (영문 보고서)	○ 전통해녀옷 <물옷>과 개량 해녀옷 <고무옷>의 역사, 특징, 제작과정 및 고무옷을 만드는 사람들 조사
2016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 2016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자료집
2016년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2016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박물관과 무형유산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이야기	○ 도내 9개교, 27명 고등학생들이 기록한 해녀조사 보고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현황 재구성)

한편, 해녀박물관에서 발간한 학술자료는 제주도교육청의 '해녀'를 통한 제주 정체성 교육 내실화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7대 희망정책[68]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제주 정체성 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해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제주해녀 관련 도서 보급', '제주해녀 관련 동

68) 7대 주요 내용은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 통한 민주시민 육성, 둘째,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강화, 셋째,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 넷째, 안전한 학교, 다섯째,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여섯째, 제주 정체성 교육 내실화, 일곱째, 교사 해외 파견 연수 확대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영상 자료 지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녀박물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해녀문화 자료집들과 보고서 등은 제주해녀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공하도록 한 목록에 포함이 되고 있다. 해녀와 관련된 자료를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계획이라 여겨진다.

제주해녀문화가 제주 정체성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일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문화의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승의 매개인 사람이다. 그래서 제주해녀문화의 해녀들이 중요하고 해녀들의 보존이 중요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같은 맥락으로, 해녀가 아니더라도 해녀문화를 이어받게 될 후세대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적 측면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교육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여러 정책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박물관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해녀문화 및 해양문화에 대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제주해녀의 가치를 고양하고 제주해녀문화 보급에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제주해녀의 가치, 해녀의 역사, 출가물질, 제주해녀 어업유산 마을어장과 생태, 해녀의 어업권제도,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 등 제주해녀 및 해양문화에 대한 다양한 장르별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녀와의 대화, 해녀유적 탐방 등 현장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6~7월에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33명이 수강하여 17명이 수료하였고, 2016년에는 22명이 수강하여 8명이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수료하였다.

도 해녀문화보존 담당 전문가는 해녀문화 보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벌써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구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향후 인류학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는 '테왁이 둥둥' 이라는 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제주해녀의 가치를 배우고, 답사를 통해 직접 경험한 것들을 2016년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바 있다. 많은 관계자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았으며,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제주 사대부고는 학교 차원에서 '테왁이 둥둥'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녀박물관은 해녀문화 홍보를 위해 구글컬쳐럴인스티튜트 온라인 전시[6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포그래픽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제주해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해녀축제를 개최하였다. 해녀박물관과 해안 일대에서 3일간 치러지는 해녀축제에서는 해녀 다큐멘터리 상영회, 해설이 있는 해녀굿, 해녀생애사진전 등 제주해녀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한편, 해산물 경매, 향토음식 판매, 수산물 시식회, 해녀 속풀이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녀축제를 제주도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도내 6개 수협, 100개 어촌계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 참여의 폭도 넓혀 나가고 있다.[70]

---

69) 2014년 10월 30일 제주해녀문화는 구글문화연구원(Google Cultural Institute)의 역사적 순간 플랫폼에 사진·영상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구글문화연구원은 세계 유수의 문화기관과 협력,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소개하는 사이트로, 구글문화연구원에 제주해녀문화가 소개되기 전까지 해녀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자료가 전무했었다. ("'제주해녀문화'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나", 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99)

70)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해녀 나잠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서』, 56~57쪽

(3) 해녀문화센터 운영

해녀문화센터는 2012년에 해녀박물관 부지에 제주해녀 공연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노래' 공연을 상설화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공연장이 없어 로비에서 공연하였으며 해녀체험, 해녀노래체험 등 해녀 전통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교육장 시설이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해녀문화센터가 운영되어, 앞서 해녀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체험장이 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4장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전승방향과 발전방안

제1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 전승방향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해녀문화 유산 보존 및 전승의 방향성을 '지속가능한 개발' 에 맞추어 정립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SDGs)은 2015년 UN 193개 회원국에 합의로 세계 공동 목표로 설정한 개념이다. 2016부터 2030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총 17가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UNESCO 또한 이제 발맞추어 2016년 제6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총회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졌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부 지침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를 위한 통합적 체계의 방향성으로 적합하다. 어업유산의 지향점은 제주해녀어업시스템(제주해녀문화)을 보존 전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인 경우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이들이 지닌 정체성을 지속시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류의 창조성의 기반으로서 작용하도록 함에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틀 속에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냈다. 여기서 제주해녀문화는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창조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의 지속성 세 개의 축으로 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때 지속가능한 개발의 각 축은 다양한 전문분야가 서로 연계되어있다. 각계각층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이 순환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개발의 측

한국문화유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관광과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활용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친화성을 통해서 관광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71] 제주해녀문화는 이전부터 관광산업의 자원으로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지나친 관광자원화로 인해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하였고,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제주해녀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활용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그 수익이 해녀공동체에게 보장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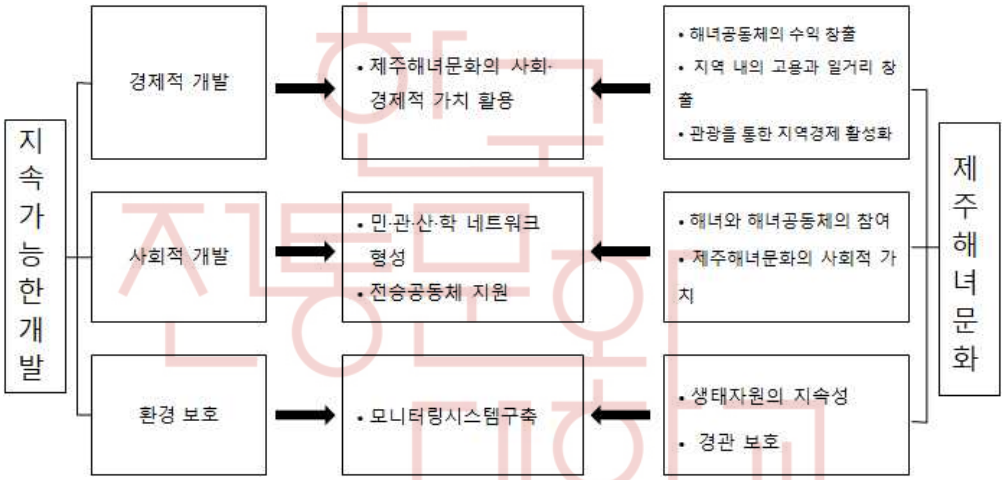
환경보호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이 전근대사회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담고 있어 환경보호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 또한 무분별한 채취를 금하고 자연과 균형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녀들은 해안의 환경 정화 작업을 도맡아 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급격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생태자원과 해안의 위치한 불턱과 해신당 등의 유형유산들이 소멸되었다.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산의 보호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회개발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정체성을 제공하고 그 전승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개발에 공헌한다.[72] 제주해녀문화의 다양한 전승주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한 상호간 협력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전승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해녀문화유산의 전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순환 구조 속에서 해녀공동체가 자립성을

71) 김용구, 2016, 앞의 글, 260쪽
72) 김용구, 2016, 위의 글, 261쪽

가지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가 과거의 틀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경제의 흐름에 따라 살아있는 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공동체적 가치 전승의 기반이 되는 어업공동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림 2]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의 방향성 정립 : 지속가능한 개발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2절 제주해녀문화 유산관리 문제점과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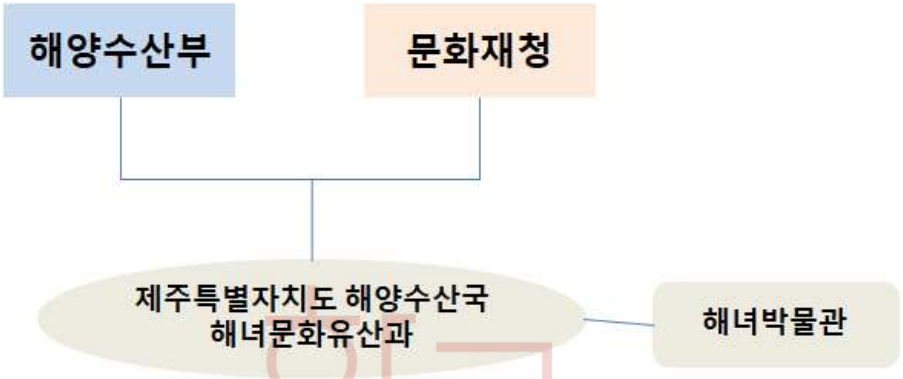
Ⅰ. 민·관·산·학 네트워크 형성

해녀문화의 바람직한 전승을 위해 정부부처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해녀공동체간 협력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사)제주해녀협회' 가 설립되면서 최초로 도 전체 해녀들이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녀들이 해녀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관리·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도 전역에 걸쳐 어업을 행하던 해녀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웠고 어촌계의 각각의 실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도 달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가 어려웠다. 해녀협회 창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과 정책대상인 해녀와 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지방정부-해녀로 이어지는 정책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많다. 이를 효율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에는 매우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이 얽혀있다. 해녀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부터 산업,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의 단체들, 해녀 등 해녀문화를 매개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은 행정적으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한다. 수산·문화·교육·산업·환경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해녀문화를 이루고 있는 해녀공동체, 생업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수협·어촌계·어촌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언론, NGO,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향유하는 잠재적인 참여자들 등이 공통의 목

한국문화유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그림 3] 제주해녀문화유산 관리조직

표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각 전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인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제주해녀문화와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 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서부터 각 산업분야로의 활용 가능성과 문화 향유와 관련한 정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순환 시스템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활용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해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녀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Ⅱ. 전승공동체 지원

제주해녀문화는 Living Heritage라고 하여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도 직업으로서 물질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수가 제주 도내에만 4000여명이 넘는다. 그러나 해녀 수의 감소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고령화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현직해녀 수 4,005명 중 98.5%(3,947명)가 50세 이상 해녀에 해당한다. 나머지 1.5%(58명)는 30-49세 해녀로, 30세 이하로는 해녀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해녀문화 보존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해녀 고령화 문제와 신규해녀 충원 문제이다.

<표 12> 연도별 제주 해녀 수

<table>
<tr><td colspan="2">연도별
구분</td><td>1970</td><td>1980</td><td>1990</td><td>2000</td><td>2010</td><td>2016</td></tr>
<tr><td colspan="2">해녀 수
(명)</td><td>14,143</td><td>7,804</td><td>6,827</td><td>5,789</td><td>4,995</td><td>4,005</td></tr>
<tr><td rowspan="5">연령구성비율
(%)</td><td>30세미만</td><td>31.3
(4,427명)</td><td>9.8
(765명)</td><td>4.3
(294명)</td><td>0.1
(3명)</td><td>-</td><td>-</td></tr>
<tr><td>30~49세</td><td>54.9
(7,764명)</td><td>60.7
(4,737명)</td><td>44.2
(3,017명)</td><td>22.1
(1,282명)</td><td>2.5
(125명)</td><td>1.5
(58명)</td></tr>
<tr><td>50~59세</td><td rowspan="3">13.8
(1,952명)</td><td rowspan="3">29.8
(2,302명)</td><td rowspan="3">51.5
(3,515명)</td><td rowspan="3">77.8
(4,504명)</td><td rowspan="3">97.5
(4,923명)</td><td>10.1
(403명)</td></tr>
<tr><td>60~69세</td><td>31.1
(1,246명)</td></tr>
<tr><td>70세
이상</td><td>57.3
(2,298명)</td></tr>
</tabl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2017년 7월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9월부터 현업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신규해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한수풀 해녀학교’와 ‘법환좀녀마을 해녀학교’ 두 개의 해녀학교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도에서는 이들 해녀학교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신규해녀 양성 및 일반인들의 해녀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해녀양성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면담에 따르면, 각 어촌계는 두 해녀학교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법환 해녀학교의 경우 '해녀 실습과정' 등의 노력으로 각 어촌계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개소한 해보다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어촌계의 기존 해녀들이 신규해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녀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녀학교의 운영 방향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녀학교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신규해녀양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개의 해녀학교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100여개의 각 어촌계가 실정에 맞게 신규해녀양성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고령화와 해녀 수의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해녀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 지원은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향후 해녀문화의 전승에도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해녀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녀라는 직업은 어려운 환경을 견디어야 하는 작업이고,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 현대에서는 과거만큼 신규해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한편, 2017년 5월에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무형문화재로서 '해녀'의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전승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자·보유단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지원 형태이다. '해녀'는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에 대한 지원은 각 개별 유산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성과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융통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해본다. '해녀' 또한 해녀의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이 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만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 특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와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전승공동체와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은 국가주도 개발전략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 성격을 강화시켜 왔고, 1980년대에 그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개발과 함께 시작된 무형문화재제도는 전수교육조교 선정, 이수증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전수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틀을 완성한다. 전수교육제도는 무형문화재 전승과정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도 개발방식이 무형문화재제도에서 구현된 것이다.[73]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고 나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급격한 변화를 일제의 강점 하에서 겪고 오랜 국가의 하향식 체제로 인해 시민사회의 성장이 어려웠고, 현재에 이르렀다. 문화재의 관리방향에 있어서도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사회자본[74]의 창출, 공동체의 형성과 역할 강화 등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기존 단순한 개별 단위의 종목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승 과정에 관계된 한 지역, 마을, 공동체의 관계, 생태환경, 가치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보호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73) 김용구, 2016,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문화재지 49권 3호, 문화재청, 263쪽

74)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또한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본은, ①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③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746&cid=42155&categoryId=42155, (검색일 : 2017.12.18.), 재인용)

라서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이 없는 종목에 대한 향후 지원방식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승과정이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를 관통하면서 관계되는 전승 시스템과 그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전승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문화 향유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녀문화의 핵심 공동체이자 전승 주체인 해녀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해녀의 수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해녀문화의 전승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녀와 해녀공동체는 해녀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전승주체이자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의 산실이다. 기존 정책과 같이 해녀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해녀문화 보존 정책의 수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승 후세대의 양성을 위한 전승자로서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해녀들의 주체적인 움직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과의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도의 제2차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기본계획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녀의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산을 추진전략의 하나로 두고 있다. 이는 제주해녀들이 스스로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지키고 현대적인 가치를 재확인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 4월 창립된 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는 창립 시 제주해녀헌장을 발표하면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노력하며 후배 해녀의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협회의 역할을 밝혔다. 해녀들의 요구와 의무사항이 잘 반영된 주체적인 전승 활동은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제29조에 따라 1997년 세계유산의 중요 가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년 유네스코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모니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터링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기모니터링(periodic monitoring)은 세계유산 협약의 적용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유지 여부, 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각종 정보, 세계유산 보존에 관한 지역협력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75] 정기모니터링은 협약이행의 신뢰성을 강화할 뿐만아니라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모니터링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정기모니터링과 별개로 반응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은 위험에 처해있는 유산의 보존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 유산 국가는 유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보존에 있어 영향을 끼칠 작업이 시행될 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 모니터링은 유산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개발압력, 자연재해, 관광개발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76]

국내법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정기보고의무의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으로서의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을 유지 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사 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조사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 10조).[77]

그러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세계유산

75) 강경환 · 김정동, 2010,「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문화재』43권1호, 61쪽
76) 강경환 · 김정동, 2010, 앞의 글, 61쪽
77) 김창규, 2015, 「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法과 政策硏究』 제15집 제3호, (사)한국법정책학회, 894쪽

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서로 성격을 달리하나,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경우에도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59호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는 어업유산의 지정과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중 제4장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는 유산의 관리주체, 유산의 복원 및 수리, 유산자원의 활용 사업과 함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실태조사(제16조)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년 1회 이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첫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여부, 둘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셋째,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 넷째,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니터링(실태조사)는 정책 환류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필요로 한다.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예산 등 근거가 되는 법적 내용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유산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 모니터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제주해녀문화의 경우에도 유산의 실태를 적절히 점검하고 정책의 수립과 평가, 환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를 위한 두 가지 모니터링 대상을 제안해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이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100여 곳 어촌계별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해녀와 유무형의 유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산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주체로서 해녀공동체를 이루는 해녀회, 어촌계, 해녀협회와 지역 NGO가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유산의 관리가 점차 관 주도에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 유산의 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녀공동체와 지역 민간이 참여함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주체가 다변화될 수 있고, 시민 참여를 통한 유산 보호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해녀들의 어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일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해녀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해녀의 수와 건강상태, 작업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어장 환경의 변화와 관련 정책의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자인 해녀와 해녀문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인 어장 환경은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제주해녀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 활용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해녀들의 작업환경과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산업화 속에서도 공동체문화와 자연과 공생하는 문화를 지켜온 해녀들의 노력, 그리고 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해 활동해온 학계와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만큼 제주해녀들이 제주 사회에 있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 내지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녀는 바다에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 정도로만 인식되고, 해녀문화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78]

78) 행정 관계자 인터뷰(2016.06.09)

해녀들의 문화는 물질작업을 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 해녀가 있다 하더라도 물 밖에서, 내륙에서는 해녀들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 사람들이 해녀문화를 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여기에 지금까지 해녀문화의 정책 수요자는 해녀 위주였고, 일반인들을 위한 해녀문화 보급 정책은 미비했다는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해녀들이 제주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어떠한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2006년 해녀박물관이 개관하여 일반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간접적으로 해녀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고, 해녀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면서 대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향후 제주해녀문화의 지속보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요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해녀문화는 해녀들을 통해 전승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해녀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습득하고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1. 해녀축제 프로그램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경제개발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사회개발이다.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이 사회개발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참여' 를 중심에 두고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참여자로서 해녀와 일반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 현재 제주해녀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해녀와 일반인들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인터뷰와 국외사례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전승 주체인 해녀 참여 프로그램 확대

해녀축제에 해녀 공동체문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한다. 해녀축제가 2006년도부터 해녀박물관 중심의 지역적 축제로 개최되었지만, 해녀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현직해녀[79]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현직 해녀이신 인터뷰 대상자는 해녀축제 추진 위원으로서, 해녀축제의 프로그램 내용이 해녀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해녀문화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불턱에서의 공동체문화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녀축제에서는 해녀들도 즐길 수 있는 해녀문화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해녀들 간 공동체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턱을 재현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물허벅과 테왁 장단에 맞춰 노래자랑을 하거나, 불턱에 모여앉아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꽁트, 연극 등이 축제에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녀축제는 도내 해녀들이 모두 모여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일반인들도 해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다. 우선 해녀들이 축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녀들의 해녀문화 재현 등이 실시되어 해녀들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일반인들이 해녀축제를 통해 해녀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후조치의 하나로 '해녀의 날'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축제기간 중 하루로 지정이 되었다. '해녀의 날' 이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축제의 오락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듯 해녀의 날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의식 함양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무형문

79) 홍○○, 한림읍 한수리, 2017

화유산에 대한 의식 함양과 관련한 사례로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를 들고자 한다.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는 2000년에 일본 가나자와 히가시차야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이는 가나자와 구시가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80] 박람회의 구역을 가나자와 도시 전체를 설정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민을 위한 박람회 프로그램에는 문화유적지 순환버스 무료 운행, 가나자와 문화지도 서비스, 가나자와 산보학,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제주해녀축제의 경우에도 현재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각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해녀들과 교류하며 해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2. 해녀문화산업 육성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경제개발은 사회개발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지만 자원의 순환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에 있어 문화가 조성되는 환경은 자원의 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의 대표적인 방법은 관광, 산업적인 활용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관광자원화와 산업화는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왜곡되게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제187조에서도 이에 대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있어서의 잠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관광의 이익에서 공동체와 전승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81]만약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80) 오정심, 2015,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8쪽
81) 김용구, 2016, 앞의 글, 265쪽

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있어 이러한 자원의 순환시스템 속에서 전승자와 지역 공동체가 소외된다면 이는 순환을 흩트릴 것이고, 무분별한 관광, 산업화 등의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유산의 경제적 활용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전승자 또는 전승공동체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전승자의 전승노력의 기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

경제개발에 있어 이러한 순환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다양한 유무형적 유산들을 이와 연계하여 활용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들이 어로작업에 있어 구축해왔던 공동체문화를 관광,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경제개발 시스템 구축에 도입함으로써 공동체문화의 재창조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 진흥의 근거가 되는 조례인 셈이다. 해녀문화산업은 해녀문화가 가진 자원을 여러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조례 제3조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 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조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도내 문화관련 기관과의 협의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등과 같은 해녀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첫째, 해녀 스테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녀문화를 여행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다. 또한 보말잡이 등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직접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부터 해양어촌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사회·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지어업인을 어촌관광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체험·휴양·관광 등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8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법환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공정여행과도 연계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제도적·의식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변화를 관광/여행에 적용한 개념이다.[83] 공정여행 참여자가 일반적인 대량 관광 상품과의 차별점으로 꼽은 것은 대략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지역밀착성, 환경친화성, 참여적경험이다.[84]

제주해녀문화는 이러한 공정여행의 핵심 가치에 부응한다. 오랜 기간 이어온 제주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해녀들의 물질작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서 자연과의 공존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해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수익이 해녀들에게 전환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채취 해산물의 상품화와 해녀음식 장터를 운영한다. 채취 해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 개발을 하여 해녀음식 장터를 운영한다. 제주에 플리마켓이 조성된 곳들 중 해안 마을에 밀접한 곳이 있다. 이러한 장터에 한 부스를 이용하여 해녀음식과 해녀문화를 보여주는 해녀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해녀문화를 알리는 팜플렛 등을 제공한다. 이는 해녀문화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

82) 주남희, 2016, 앞의 글, 57쪽
83) 변형석, 2016, 「지속가능한관광과공정여행」, 『한국관광정책』 제6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4쪽
84) 변형석, 2016, 위의 글, 44쪽

셋째, 해녀의 길을 조성한다. 올레길과 연관하여 해안을 따라 해녀의 길을 조성한다. 해녀문화의 유산인 불턱과 해신당은 해안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어서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쉽게 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들을 길로 엮어 해녀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이는 해녀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안 개발에 대응하여 제주해녀문화를 비롯 해안마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3. 해녀 특산품 인증제도 도입

해녀들의 물질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 해녀들이 이를 유지·전승할 수 있는 기반은 경제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는데 이는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유통하는 것이다. 현재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이 유통되는 방법은 대부분 각 지역의 관할 어촌계와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주해녀들의 주요 수입원은 소라인데, 그 가격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해녀들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졌다. 최근 중국에서 값 싼 소라와 해산물들이 들어오면서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와 해산물들이 가격 경쟁 면에서 경쟁력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녀들의 연간 소라 채취량의 80%를 수출하던 일본의 엔저 영향과 일본 시장의 소비 부진 또한 소라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수협 차원에서도 소라가격 안정지원을 하고 있다.[85] 최근에는 군납을 통한 안정된 소라 판매처 확보 계획도 논의 중에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차별성을 두고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에 문화적 가치를 덧입혀 고급화와 다양한 소비처 확보를 위해

85) 현재(2017년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가격이 kg당 4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1000원까지 가격 보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협 또한 kg당 5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특산품으로 고식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86] 최근 식품 구매에 있어 품목이 친환경인지,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부가가치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점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 그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무형문화재 유형 중 공예품인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전승 주체인 해녀들의 전승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86) 제주특별자치도, 2016,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해녀어업 관련 수산물 브랜드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해녀어업 브랜드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문화 유산의 가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전승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유산 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산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유산관리의 발전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제주해녀들의 문화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3개의 국내외 유산 제도에 지정·등재되어있다. 이는 해녀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해녀 지원, 해녀에 관한 학문적 가치를 연구해온 연구자와 이러한 가치들을 공공에 알렸던 언론까지 각계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3개의 각 유산 제도가 얽혀있는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유산 제도들을 분석하여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요소와 개념을 정립하고, 제주해녀문화가 문화적 관점에서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제도에 따른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산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각 제도의 유산 관리의 방향성에 부합하고 각 관리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해녀문화'는 제주 지역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어업활동을 해온 해녀들의 문화이다. 해녀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다양한 요소들을 창조하고 전승해왔다.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 신앙 및 의례, 해녀노래, 해신당 및 불턱, 물옷과 물질도구 등 해녀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창조해온 각각의 유·무형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유·무형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요소, 즉 해녀공동체와 공동체의 규율, 구조 등의 공동체 문화도 포함할 수 있다. 해녀공동체는 자연·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각각의 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현재까지 전승시켜 왔다. 또한 지역의 어촌계, 마을, 지역민들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교류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이 '제주해녀문화'라는 개념 속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축

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인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따고 규정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그 자체로 생업이자 문화인 살아있는 유산이다. 제주해녀들이 어업활동을 할 때 쓰이는 무형적 소산인 물질기술과 민속지식은 사회와 환경이 변함에도 그에 적응하며 현재까지도 전승되어왔다. 제주해녀문화가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다. 항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어업환경을 극복하고자 해녀들은 공동체 규율을 확고히 해왔고, 이 공동체 시스템이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기술 및 민속지식을 포함한 유·무형적 소산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과 공동체 문화로서 의미가 크며,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유산의 직접적인 관리는 결국 유산이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지원을 활발히 해왔다. 이는 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목표와 내용 측면에 있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책 목표와 수단에 변화가 생겼고, 이를 이루는데 있어 관뿐만 아니라 언론과 민간단체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또한 그러한 변화 이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 그 제도, 관리조직, 예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제도를 통한 관리체계 검토와 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주해녀문화 유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주해녀문화의 유산관리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는 점이다. 무형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창조적 기반의 역할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적 개발, 사회적 개발, 환경 지속성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무형유산은 자연친화적이며, 유산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제주해녀문화는 덧붙여 현재에도 경제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인 기능을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구조 속에서의 역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통해 문화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축에 상응하는 전승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 축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의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관은 각 관계자 간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제주해녀문화는 앞서 개념 정의에서 밝혔듯이, 개별 종목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인적·물리적 환경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종목만의 개별 보호가 아니라 제주해녀문화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활용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은 단순히 원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 활용되면서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때에 제주해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시키기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관광, 산업 등 각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전승방안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동체적 가치 전승의 기반이 되는 어업공동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는 해녀문화유산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기반이 조성되고 유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에 유산 관련 제도 검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유산관리의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정책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한계가 있다. 제주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자연친화적인 활동,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국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적 흐름 속에서 무형유산으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참고문헌

1. 단행본

강대원, 1973,『해녀연구』, 서울 : 한진문화사

김영돈 외, 1999,『한국의 해녀』, 민속원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디자인오투

안미정, 2008,『제주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성훈, 2005,『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이성훈, 2005,『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전승양상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 민속원

제주특별자치도, 2006,『제주수산60년사』

조규익 외, 2005,『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 서부 경남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좌혜경 외, 2004,『제주잠녀(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잠녀학) 정립 가능성 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좌혜경 외, 2006,『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서울 : 민속원.

좌혜경, 2015,『제주 해녀』, 대원사

한림화, 1987,『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서울: 한길사

Edward. B. Tylor, 1871, Primitive Culture. London: J. Murray

2. 논문

강경환·김정동, 2010,「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문화재』 43권 1호, 문화재청

고승한, 2004,「제주해녀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변화」, 『제주발전연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구』 통권 제8호, 제주발전연구원
김수희, 2007,「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지역과 역사』제21호, 부경역사연구
김영돈·김범국·서경림, 1986,「해녀조사연구」,『탐라문화』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용구, 2016,「지속가능한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문화재』 제49권 제3호, 문화재청
김정숙, 1990,「제주도 해녀복 연구」,『탐라문화』10호, 탐라문화연구소
김창규, 2015,「한국의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法과 政策硏究』 제15집 제3호, (사)한국법정책학회
박승한 외, 1993,「제주 해녀의 신체구성 성분 및 폐기능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연구지』2.1, 영남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
박찬식, 2004,「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역사민속학』제19호
변형석, 2016,「지속가능한 관광과 공정여행」, 『한국관광정책』제6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미정, 1998,「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제주도연구』15, 제주학회
유철인, 1998,「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한국문화인류학회.
유형숙 · 이성호, 2011,「부산광역시 “해녀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제7권 제1호, 동북아관광학회
이성훈, 2003,「통영 지역 해녀의 <노젓는 노래> 고찰 : 노동 행위와 민요 가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요론집』제7집, 민요학회.
좌혜경, 2002,「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한국민속학』제36권, 한국민속학회
좌혜경 · 권미선, 2009,「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32집
최종호, 2017,「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무형유산학』 2(1), 전주: 무형유산학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한숙영 · 김사헌, 2007,「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관광학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관광학회
현홍준 · 서용건 · 고계성, 2010,「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관광자원 선택속성, 영향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탐라문화』제37호

3. 학위논문

변진희, 2008,「제주해녀 보존·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미정, 1998,「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미정, 2007,「제주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숙연, 1994,「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산업미술대학원.
양희주, 2015,「제주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정심, 2015,「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남희, 2016,「국가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혜경, 1976,「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 해녀복과 농민복의 실물을 중심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대학원

4. 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해녀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농림축산식품부, 2015,『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백서』
문화재청, 2013,『문화재연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문화재청, 2016,『‘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1,『해녀문화의 세계화와 해녀 소득 증대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13,『해녀문화유산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4,『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2015,『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5,『제주해녀 나잠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2013,『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5,『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제주시편』
제주특별자치도, 2016,『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제주해녀사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0,『이여이여이여도사나: 제주해녀노래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제주해녀옷 이야기』

5. 발표 · 기고문

문무병, 2011,「제주칠머리당영등굿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안-」,『제주해녀의 재조명』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박용옥, 2011,「제주해녀 항일투쟁과 그 여성사적 의의」,『제주해녀의 재조명』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우에스기 도미유키, 2011,「‘해녀문화’의 창조 및 재발견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운동 ‘글로컬리제이션의 관점에서」,『제주해녀의 재조명』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조한혜정, 2015,「제주해녀의 노동, 일, 그리고 삶 : 젠더, 식민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여성과 해양문화』 2015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좌혜경, 2011,「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해녀노래」, 『제주해녀의 재조명』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6. 기타 · 누리집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0, 두통 시달리는 해녀, 이제 ‘뇌선’보다 ‘챔버’,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1,「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14,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NIFAS)
FAO, 2002, 세계농업유산 제도(GIAHS)
UNESCO, 2016,『Operational Directives』

국가중요어업유산, https://국가중요어업유산.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성산포수협, http://www.sungsanposh.co.kr
유네스코, http://www.unesco.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제민일보, 2005~2016 잠녀기사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http://www.jeju.go.kr
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
제주학아카이브, http://www.jst.re.k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the Sustainable Transmission Plans for Culture of Jeju Haenyeo

Ko, Eun Sol

Major in Legal Policy for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Sang Chul

한국문화재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heritage systems for 'Culture of Jeju Haenyeo' and the status of heritage managemen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so it proposes directions of development and plans.

'Culture of Jeju Haenyeo' is the life of women who worked in the sea of Jeju Island. 'Culture of Jeju Haenyeo' refers to the culture of knowledge, skills and rituals and women divers who have lived based on the sea in Jeju. 'Culture of Jeju Haenyeo' include tangible·intangible elements created from diving activities, such as diving skills and folk knowledge, a shamanic belief system, 'Haenyeo Norae'(haenyeo song), cultural spaces, working tools and clothes, and customs of Haenyeo community. It has a long history of Haenyeo, and to date, the Culture of Jeju Haenyeo is a living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identity of the Jeju coastal village and

maintains a community.

It has been designated and listed in the three heritage systems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heritage. In 2015, 'Jeju Haenyeo Fisheries System' was designated as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s, in 2016 it was register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aenyeo' throughout Korea in 2017. It is the result of hard work that Haenyeo sustain their community despite social change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upport systems for maintaining Haenyeo's occupation. Moreover, there are the efforts that the researchers studied about Haenyeo, the media informed the public, and civil organizations were in various action. These are all transmission communities that play a vital role in the sustainable transmiss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To sustainable transmission, Culture of Jeju Haenyeo, a living heritage, must be constantly recreated in the human and phys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ulture of Jeju Haenyeo.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Culture of Jeju Haenyeo as heritage and related legacy system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management as a living heritage. And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management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established the basis for the management of the heritage of 'Culture of Jeju Haenyeo', and propose development plans for the sustainable transmission of the Culture of Jeju Haenyeo.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ulture of Jeju Haenyeo'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each heritage system includes the elements recognized as an heritage. Therefor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ulture of Jeju Haenyeo, the existing research was reviewed and the values of Culture of Jeju Haenyeo recognized by each heritage system were analyzed. Culture of Jeju Haenyeo is a living Heritage not only a working but culture. The biggest reason why this is possible is the Jeju Haenyeo's communities. They observe their own rules strictly to overcome unsafe environment. And this cummunity system has Important cultural meanings. Local authorities in the area play a large role in managing the heritage they belong to. Je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active in supporting regarding the Culture of Jeju Haenyeo. In this paper, the chaging aspects of its action and the status of the system for the heritage management of Culture of Jeju Haenyeo.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 heritage of 'Culture of Jeju Haenyeo' so that it can be continued as a living heritage. The strength of 'Culture of Jeju Haenyeo' is that it is now the most suitable intangible heritage for the global tre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n serve as a creative infrastructure in 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hree dimensions :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epresents the local identity of the heritage community. 'Culture of Jeju Haenyeo' has also demonstrated that it still functions economically today and that it can play a role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ucture. When adopted each three criteri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of Jeju Haenyeo, it presented the following needs for development plans. First, it forms the network of civil, public, mountain, and academic. Second, transmission communities are supported. Third, a monitoring system for policy evaluation is established. Fourth, it takes advantage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values to spread the cultural value of Culture of Jeju Haenyeo.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conduct a policy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of Jeju Haenyeo'.

Keyword : Culture of Jeju Haenyeo, Sustainable Transmis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sheries Heritage, Heritag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